

물, 자연 그리고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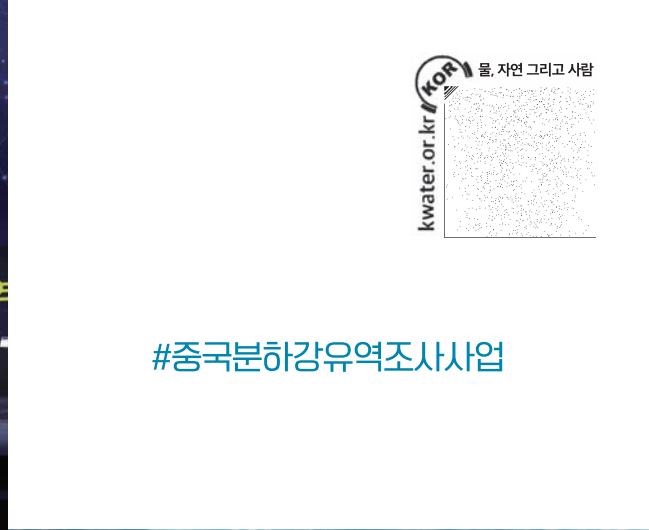
K-water monthly magazine Vol. 661

2023년 4월호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을
카카오톡으로 만나보세요.

K-water는 세계 곳곳에서
물로 특화된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물관리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물문제를 해결하며
물로 행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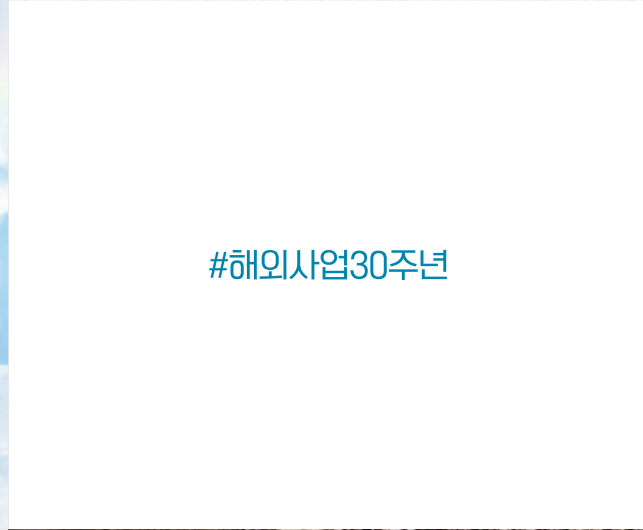


#중국분하강유역조사사업



#kwater해외사업 좋아요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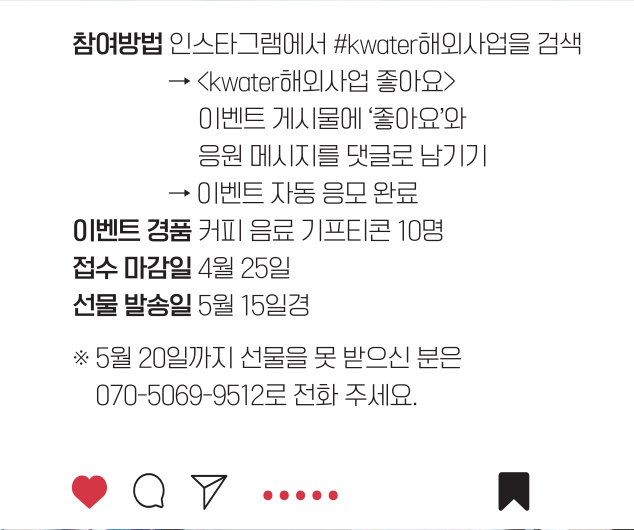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kwater해외사업을 검색하고 <kwater해외사업 좋아요> 이벤트 게시물에 '좋아요'와 '응원 메시지'를 댓글로 남기면 이벤트에 자동 응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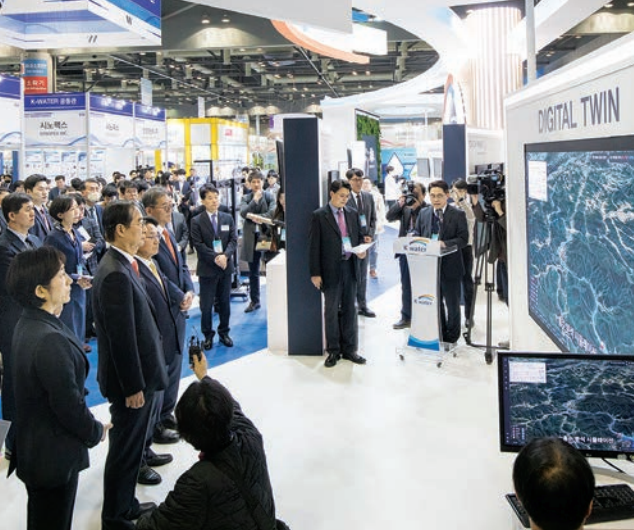
#해외사업30주년



#파키스탄파트린드수력발전사업



참여방법 인스타그램에서 #kwater해외사업을 검색 → <kwater해외사업 좋아요> 이벤트 게시물에 '좋아요'와 응원 메시지를 댓글로 남기기 → 이벤트 자동 응모 완료
이벤트 경품 커피 음료 기프티콘 10명
접수 마감일 4월 25일
선물 발송일 5월 15일경
※ 5월 20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70-5069-9512로 전화 주세요.



#인도네시아카리안광역상수도사업



CONTENTS

K-water Monthly Magazine
2023. 4 | Vol. 661



창간일 1968년 1월
발행일 2023년 4월 1일
통 권 661호
편 집 홍보실
발행처 K-water(www.kwater.or.kr)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제작·대행·인쇄 ㈜이팝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K-water에서 발행하는 물 전문 매거진입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 강령과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이 책에 게재된 글은 K-water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친환경 식물성 원료인 콩기름과 친환경 용지를 사용해 인쇄했습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을 카카오톡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 08 제로여행**
물이 바다를 만날 때 제주도
- 14 제로상점**
소소하지만 지구를 지키는 즐거움이 있다 제주 <지구별가게>
- 16 제로라이프**
세계가 쓰레기 제로에 도전합니다
- 18 사람이 애쓰지(ESG)**
단순하게, 건강하게 텃밭으로 돌아간 비건 셰프 권오진
- 22 지구보고서**
가뭄에 타버린 농심... 우리가 해야 할 일
- 24 친환경 지구여행**
장엄하고 청정한 자연을 간직한 스위스
- 28 두잇두잇**
손으로 조물락조물락 만드는 폴리머클레이
- 30 건강처방전**
봄날이면 구벽꾸벅 물려오는 춘곤증



- 32 수(水)타벅스가 간다**
화사하게 핀 벚꽃과 향긋한 커피가 함께한 하루
- 36 숫자로 보는 K-water**
K-water 해외사업 30년의 발자취
- 38 K-water 리포트**
30년을 맞이한 K-water의 해외사업, 글로벌 물복지를 실현합니다



- 42 K-water ESG**
지역사회와 함께 페플라스틱을 활용해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다
- 44 어느 멋진 날**
섬세한 손끝으로 완성한 도자기 수자원운영처 직원 5명의 도자기 만들기
- 48 마음상담소**
끈대로 보이지 않게 말하고 싶어요
- 50 퀴즈있수다**
물 절약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K-water는 AWC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해외 정부와 국제기구, 투자기관을 연결하는 글로벌 물분야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51 이슈있수다**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챗GPT
- 52 K-water 포커스 ①**
함께 만드는 변화, 새로운 기회의 물결을 만들다
- 54 K-water 포커스 ②**
K-water, UN 물 총회에 주도적인 참여로 글로벌 협력을 이룬다
- 56 News**
- 58 수놓은 문화**
- 60 방울이와 DIY**
- 62 K-water SNS**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의 우측 상단에는 시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보이스아이(음성 변환 바코드)가 삽입돼 있으며,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 QR 코드를 스캔하면 글을 읽어서 들려주고, 60여 개 언어로도 번역을 지원합니다.



물이 바다를 만날 때

제주도

제주는 언제나 옳다는 말이 있다. 도시의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대자연의 너른 품을 내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상탈출을 꿈꾸는 이들에게 제주도는 여행의 로망이다. 특히 이맘때 제주도는 제주도만의 독특한 풍경이 있어 '언제나 옳은 제주'를 한결 더 설레게 한다. 따사로운 봄별이 어깨를 감싼 어느 날, 제주도를 찾았다.

글 사진: 임운석(여행작가) 일러스트: 이신혜



제주도에서 하천을 보셨나요?

제주도의 하천은 대부분 건천(乾川)이다. 잦은 화산활동으로 인한 지질적 특성상 비나 눈이 녹아 고이지 못하고 땅속으로 스며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양의 비가 오는 우기가 아닌 이상 유유히 흐르는 하천을 보기 어렵다. 전국 최다강수량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저수지나 하천으로 가두지 못하기에 제주도는 예부터 식수는 물론이고 생활용수마저도 귀했다. 그러니 '눅싹을 때 물 하영 쓰민 저싱 가민 그 물 다 먹어서 혼다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이 말은 '세수할 때 물을 헤프게 쓰면 저승에서 세수할 때 썼던 물을 다 먹어야 하는 형벌을 받는다'는 말이다.

제주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남북은 거리가 짧고, 동서는 상대적으로 긴 락비공처럼 길쭉한 타원형이다. 제주도의 하천은 경사가 급하면서 거리가 짧은 남북 지역에 많다. 북쪽은 제주시를 중심으로 반경 10km, 남쪽은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반경 20km에 하천이 집중돼 있다.

제주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산

제주도의 절대권력자는 분명 한라산이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산은 남단에 종처럼 봉긋하게 솟은 산방산이다. 실제로는 다르게 산방산은 한라산보다 늦게 만들어졌다는 전설이 내려오기도 한다. 포수에게 화살을 맞은 옥황상제가 화김에 한라

산 꼭대기를 뿔아 던진 것이 산방산이 됐다고 하니 말이다. 그러나 사실은 제주도의 기초를 이루는 지층이 서귀포층으로 그 대표가 산방산이다.

제주도의 태곳적 모습이 궁금해 산방산을 먼저 찾았다. 산 중턱에 있는 산방굴사 앞에 서면 쪽빛 바다를 배경으로 용의 머리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형상을 닮은 용머리해안이 한눈에 들어온다. 용머리해안은 첫인상부터 매우 강렬하다. 전설에 따르면 이 기이한 형세를 허투루 여기지 않은 이가 있었다. 중국 진시황제가 제주도에서 장차 왕이 태어날 것을 알고 풍수사 호종단을 보내 혈을 끊으라 한 것이다. 이에 호종단이 혈맥을 찾아 칼로 내리치자 검붉은 피가 솟았다고 한다. 오늘날 용머리해안의 탁한 주황색 빛깔은 그때 치솟은 피가 주변을 물들인 핏자국인 셈이다. 용머리해안은 지질학적 가치 또한 매우 높다. 산방산과 함께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체로 한라산보다 훨씬 더 빨리 형성됐다. 용머리해안은 흡사 미국의 그랜드캐니언을 축소한 듯 웅장한 기암절벽이 드라마틱하게 이어진다.

제주도 폭포 열전, 천제연에서 정방까지

제주도에서 힘찬 물살을 볼 수 있는 곳이 몇몇 있다. 제주도 서귀포 일대 남쪽 해안을 따라 형성된 폭포가 주인공이다. 서귀포는 제주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용천수와 폭포가 특히 발달했다.



녹산로 유채꽃길

유채꽃과 벚꽃이 꿈길처럼 아름답게 펼쳐진 곳이다. 그 덕분에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됐으며 제주도에서 4월에 가장 인기 높은 드라이브 코스로 손꼽힌다. 왕복 2차로를 따라 셋노란 유채꽃과 구름처럼 뭉게뭉게 피어난 연분홍색 벚꽃이 제주도를 찾은 여행객들의 마음을 더욱 설레게 한다. 유채가 만개하는 때에 맞춰 유채꽃 축제가 열린다. 인근에 성읍민속마을이 있다.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 87-15



제주도 산방산 유채꽃밭



여행고수가 알려주는 여행지 이야기



광치기해변

성산일출봉에서 섭지코지로 향하는 지점에 성산일출봉의 자태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광치기해변이 있다. 뜨거운 용암이 바닷물을 만나 급하게 식으면서 생성된 독특한 지질구조와 성산일출봉을 배경 삼아 장엄하게 떠오르는 일출을 보기에 좋은 명소다. 봄철에는 해변 주변을 셋노랑계 물들인 유채꽃이 장관이다.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로 63



제로여행

천제연 제2폭포

제주도의 폭포는 미리 계획이라도 한 듯 한결같이 바다로 향한다. 수십 또는 수백 km를 달려야 비로소 바다와 조우하는 내륙의 하천과 달리 제주도의 하천은 눈에 띄지 않게 땅속을 촉촉이 적시며 낮은 곳으로 임한다.

대표적인 용천수 폭포로 손꼽히는 천제연폭포는 세 개의 폭포로 나뉜다. 제1폭포는 폭포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우기가 아니면 물이 떨어지지 않는다. 대신 주상절리형 암벽 사이를 뚫고 용천수가 계속 흘러나와 21m에 달하는 수심을 자랑한다. 기묘한 암벽과 영롱한 에메랄드빛의 연못이 자아내는 풍광은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색다른 풍경이다. 제2폭포와 제3폭포는 일반 폭포처럼 시원스레 절벽에서 물을 쏟아낸다.

천지연폭포는 이름부터 남다르다. '하늘과 땅이 만나 이루어진 연못'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니 그 아름다움이야 어디에 견줄 수 있을까. 이런 이름을 얻은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다. 22m 높이에서

흘러내린 폭포수가 수십 20m까지 깊숙이 낙하한다. 절벽 높이에 걸맞게 그 아래 깊이가 20m에 이르는 것이다. 실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연못이라 불릴만한 높이요, 깊이다. 천지연폭포 일대의 울창한 난대림은 천연기념물 379호로 지정·보호 중이다. 천지연폭포에는 몸길이가 2m, 몸무게가 20kg에 이르는 거대한 무태장어(천연기념물 27호)도 살고 있다. 바다와 민물을 오가며 생활하는 회유성 어류인 무태장어는 빛에 매우 민감해 낮에는 폭포 깊은 곳에 숨어 있다가 어둠이 짙은 밤에 수심이 얇은 곳으로 나와 먹이를 잡아먹는다.

정방폭포는 천제연폭포, 천지연폭포와 더불어 제주도 3대 폭포에 속한다. 매표소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면 우렁찬 물소리가 들려온다. 23m 높이에서 수십 5m까지 곤두박질치는 폭포라니. 게다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물에서 바다로 직행하는 폭포다. 폭포 양 옆에는 주상절리도 볼 수 있는데 수직 암벽이 신비롭기 그지없다. 정방폭포 서쪽 절벽에 '서불과차(徐市過此)'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서불이 이곳을 지나갔다'라는 뜻으로, 전설에 따르면 중국 진시황제의 명을 받아 제주도에 불로초를 찾으러 온 서불 일행이 남긴 것이라고 한다.



섬지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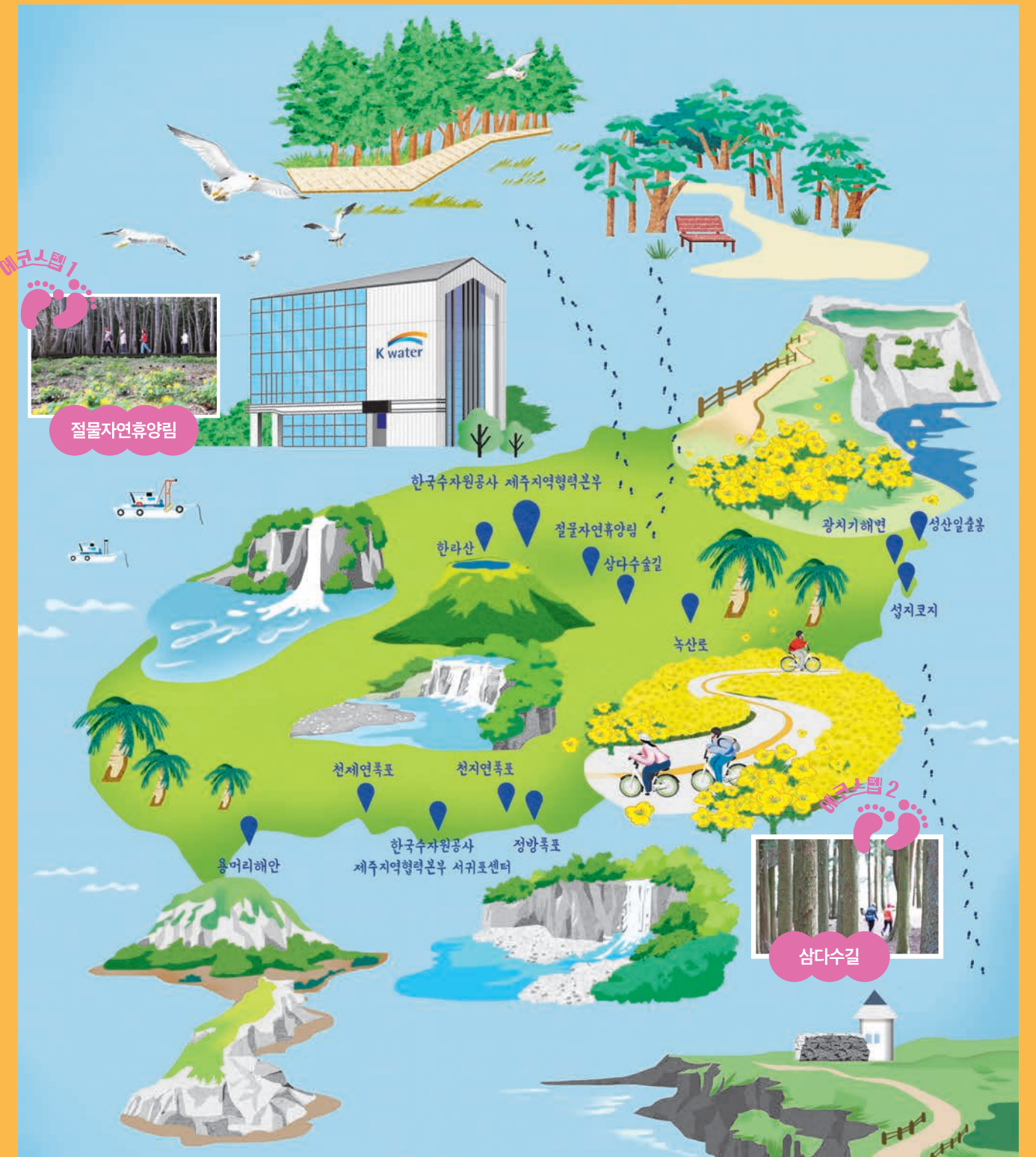
성산일출봉과 함께 제주도 동부 해안에서 최고의 풍경을 자랑하는 곳이다. 야트막한 언덕을 오르면 흐드러지게 핀 유채꽃밭과 봉수대, 기막힌 해안 절경과 그 너머 언덕 위의 하얀 등대가 우뚝하다. 한마디로 4월 제주도 여행에서 빼놓으면 안 될 최고봉이다. 등대 전망대에 오르면 기묘한 암석들이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에 모습을 얼핏얼핏 보이며 신비함을 더한다.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섬지코지로 107

K-water 제주지역협력본부

K-water는 제주도의 물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제주도와 상생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제주도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016년 애월읍 고지지역과 서귀포시 토평동 지역에 대한 상수도 유수율제고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 애월읍 전체, 2018년 한림읍·한경면, 2019년 대정읍·안덕면 및 조천읍에 대한 유수율제고사업을 추진했다. 2020년부터는 인구 밀집지역인 제주시 및 서귀포시 동 지역에 대한 상수도 유수율제고사업 및 제주시 서부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읍·면지역의 유수율은 65% ~ 70%, 제주시 및 서귀포시 동 지역의 유수율은 75%, 현대화사업 지역의 유수율은 85%까지 향상시킬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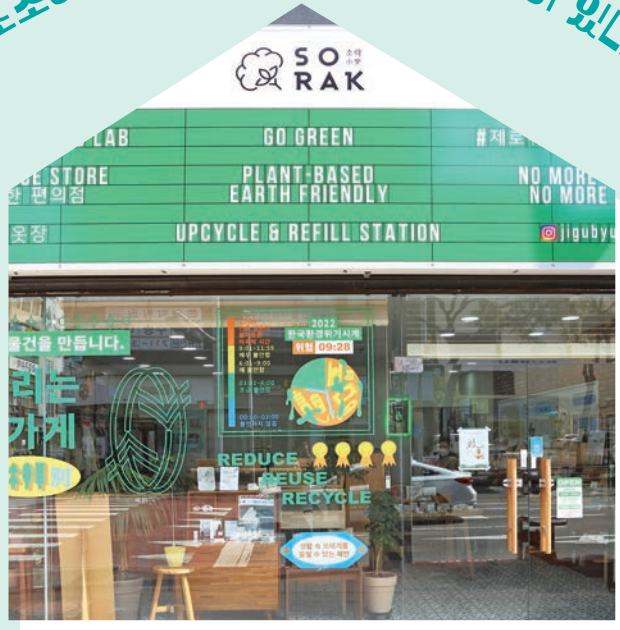
찾아가GO, 체험하GO
언제나 맑은 봄날의 제주도 여행 스폿



[메코스톱 1]
울창한 삼나무숲에 발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건강해지는 곳이다. 삼나무 외에도 해송, 산뽕나무 등 다양한 식생이 숲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 '절물'은 휴양림에 흐릿한 우물이 있다 해서 붙은 이름이다. 우물은 휴양림 중앙에 있는 연못을 지나 절물오름(697m) 갈림길 초입에 있다.

[메코스톱 2]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던 오래된 임도를 정비해 만든 탐방로다. 2010년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된 이후 2018년 교래삼나무마을이 제주도의 13번째 지질공원 대표명사로 지정되면서 지질트레일 코스에 포함됐다. 총 세 개 코스가 있으며 1코스는 30분, 나머지는 3~4시간 정도 걸린다.

소소하지만 지구를 지키는 즐거움이 있다



제로웨이스트 상점 제주 <지구별가게>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어딘가에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어린왕자>에 나오는 글이다. 은하계에서 유일하게 푸른빛을 발하는 별, 지구. 그 푸른 별을 지키는 것은 사막에서 우물을 지키는 것과 같지 않을까. 제로상점 <지구별가게>를 찾았다.

글·사진 임운석(여행작가)



시작은 소소했지만, 어느덧 지구를 품었다

사거리 큰 도로변에 별이 잘 드는 가게가 있다. 유리창에는 재미있는 글귀가 붙었다. '지구를 위한 편의점', '지구별 옷장', '제로웨이스트', '지구를 살리는 別(별) 가게', '지구와 나를 위한 다시 쓰고 오래 쓰는 물건을 만듭니다.' 가게 앞에 서서 큰 유리창에 붙은 글만 가만히 읽어도 이 가게가 뭘 하는 곳인지 눈치챌 수 있다. 밝은 빛이 가게 구석구석을 밝힌다. 해 그림자가 길어지는 오후가 되자 노란빛이 가게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온다. 진열된 상품 위로 내리쬐는 별은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물줄기처럼 따뜻해 보인다. 천, 나무 등 자연 소재로 만든 생활용품이 가게 벽면과 중앙 진열대에 질서정연하게 자리 잡은 <지구별가게>다. 일회용품을 다회용품으로, 플라스틱 제품을 천연 소재 제품으로 대체함으로써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나와 지구에 해가 없는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제로웨이스트 가게다. 이 가게는 지난 2018년에 문을 열었다. 개업 이후 지금까지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소락패드(면 생리대)'다. '천으로 만든 다회용 생리대는 번거롭고 불편할 것 같다'라는 말에 이경미 대표의 대답은 간단명료하다. "오늘 신었던 양말은 빨아서 다시 신잖아요." 다른 질문이나 반박이 필요 없는 우문현답이다.

제로웨이스트를 공유하는 공간

'내 몸과 지구를 살리는 소소한 즐거움', 브랜드 '소락'의 시작은 독특하다. 지난 2016년 여성용품을 살 돈이 없는 저소득층 소녀들이 신발 깔창을 대신 이용한다는 이른바 '깔창 생리대' 뉴스가 있었다. 이 소식을 접한 지인들이 모여 의기투합했고, 면 생리대를

직접 만들어 소녀들에게 보냈다. 의미 있는 봉사활동으로 시작했던 '소락'은 현재 10명의 직원이 140여 개의 면 제품을 만드는 어엿한 기업으로 성장 중이다.

소락패드는 100% 유기농 면 원단만 사용한다. 목화를 재배할 때 제초제나 살충제 등 해로운 화학 약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원단부터 환경과 사람에게 해가 없는 것을 선택한다. 심지어 실도 순면실만 고집한다. 이경미 대표는 이런 원칙에 대해 "현재 사용하는 실은 대부분 아크릴로 만든 실인데요. 이런 실은 생분해되기까지 200년의 세월이 걸리지만, 순면실은 5개월이면 생분해돼요"라고 말했다.

가게 한쪽 벽에 '우리에게는 새 옷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옷이 필요해서'라는 글이 적힌 '지구별옷장'이 자리한다. 더이상 입을 것 같은, 그러나 버리기 아까운 옷을 가게에 가지고 와서 개수에 맞게 옷장에서 마음에 드는 옷으로 교환해 가는 방식이다. 이용 금액은 옷 수량에 상관없이 1회 5천 원이다. <지구별가게>는 기본적으로 리필 스테이션 제품, 고체 세제와 치약, 나무 칫솔 등 다른 제로웨이스트 가게처럼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직접 제로웨이스트 제품을 만들어보는 체험 행사도 운영한다.



(지구별가게)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58, 1층
문의 064-711-8291

세계가 쓰레기 제로에 도전합니다



미국, 재활용 용기에 담아 배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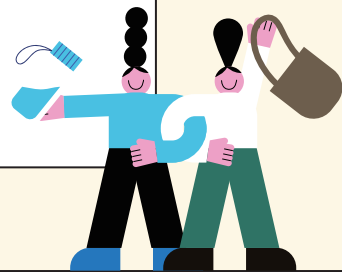
#Loop



테라사이클은 전 세계가 직면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폐기물 제로화에 도전하는 글로벌 업사이클링 기업이다. 테라사이클은 '루프(Loop)'를 진행하고 있다. 루프는 사용하는 제품을 재사용 가능한 다회용기에 담아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제로웨이스트 플랫폼이다. 소비자가 필요한 것을 루프에서 주문하면 제품이 재활용 용기에 담겨 집으로 배송된다. 제품을 사용한 뒤 포장 용기를 문 앞에 두면 루프는 수거해 세척 후 재사용한다. 고객이 원하면 '자동 리필'을 설정하고 제품을 다시 받아 재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포장용기 모두 재사용·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초기에는 온라인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이제 고객들은 사용 용기를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주변 매장에서 직접 반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순환 인프라를 구축하며 소매 매장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

홈페이지 <https://exploreloop.com>



제로웨이스트는 일상 속 착한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쓰레기를 'zero'로 만들겠다는 의미인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실천할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참여하고 있다. 일찌감치 해외에서는 시작된 제로웨이스트. 지금 해외에서 주목받는 제로웨이스트 활동은 무엇일까?

글. 이종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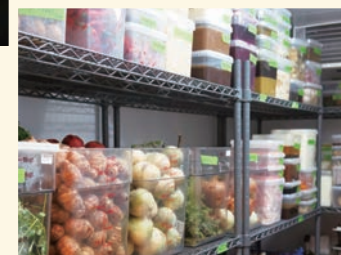
영국, 친환경 레스토랑

#SILO



영국 런던에 제로웨이스트를 시작한 레스토랑이 있다. '사일로(SILO)'라는 식당인데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속가능한 디자인에 중점을 둔 사일로는 식재료와 포장재 등 자연분해와 생분해되는 것을 사용한다. 레스토랑에서 소비되지 않는 식재료는 퇴비로 만들어 직거래하는 농가에 무료로 전달하는 자원순환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친환경 레스토랑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식당 곳곳에서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있다. 가령 대부분의 곡류는 직접 제분해서 사용한다. 밀가루 공장, 양조장 등 자체 농장을 운영해 요리에 들어가는 식재료의 대부분을 직접 생산한다. 음식을 담은 접시는 버려진 비닐봉지를 업사이클링한 것이고, 영수증은 종이 대신 이메일로 보낸다.

인스타그램 @silolond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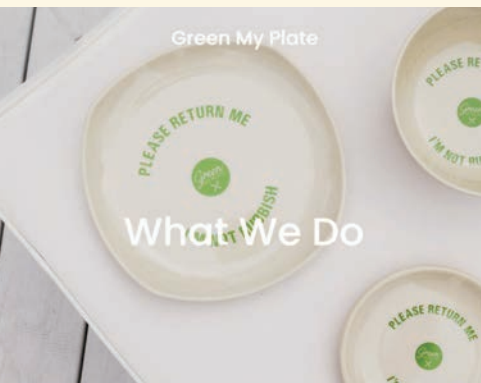
호주, 지속가능한 재사용 접시

#Green My Plate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재사용이 가능한 접시와 그릇으로 더 깨끗한 발자국을 남기고 있다. 바로 '그린마이플레이트(Green My Plate)'를 통해서다. 그린마이플레이트는 여러 행사에서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일회용 식품 포장물 없애는 것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했다. 지난 2022년 2월,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제공한 모든 음식에 대해 재사용 서비스를 제공했다. 사용법은 간단하다. 대회장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접시와 그릇을 사용하고, 지정된 반납함에 넣으면 된다. 그린마이플레이트는 접시에 'Please return me, I'm not rubbish(나를 돌려줘, 난 쓰레기가 아니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홈페이지 www.greenmyplate.com.au



태국, 식물에서 유래한 플라스틱

#PLASTICFROMPLANTS



태국 방콕의 카페를 다니다 보면 종이빨대나 '#PLASTICFROMPLANTS(식물에서 유래한 플라스틱)'라고 쓰인 빨대를 보게 된다. 이 빨대를 만든 건 바이오 플라스틱 제조 업체 '플랜타스틱(PLANTASTIC)'이다. 플랜타스틱은 식물(Plant)과 플라스틱(Plastic)의 합성어다. 플랜타스틱은 바이오 플라스틱 빨대와 일반 플라스틱 빨대를 구분하기 위해 '#PLASTICFROMPLANTS'라는 해시태그를 달기 시작했는데, SNS를 통해 제로웨이스트 운동으로 확산되면서 태국 국민들이 환경에 관한 관심을 갖는 데 일조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100% 재생이 가능한 플라스틱을 제조하며, 식물로 만들어져 사용 후 퇴비화된다.

인스타그램 @plantasticproducts





단순하게, 건강하게
텃밭으로 돌아간 비건 셰프

권오진

현대의 인스턴트 가공식품과 달고 짠 각종 양념들의 향연 속에서 자연이 주는 진실한 '맛'에 집중하는 이가 있다. 밭에서 직접 기른 신선한 식재료를 지구를 생각하는 건강한 요리를 선보이는 권오진 셰프가 주인공이다.

글. 조서현 사진. 김범기



66

사람들은 흔히 비건 요리는 곧 맛이 없는 요리라는 선입견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맛이 없는 식재료는 없죠. 재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알맞게 요리하고 또 그 맛에 익숙해지면 비건 요리도 일반 요리 못지않게 맛있을 수 있습니다.

99



‘자연스러운 음식’을 추구하다

시중의 음식들은 소비자를 사로잡기 위해 나날이 자극적인 맛을 쫓아가고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을 중심으로 공장식 식품 생산 시스템에 익숙해진 지 오래다. 어느새 우리의 식탁은 ‘자연스러움’을 찾기 힘들어졌다. 이에 자연주의 비건 요리의 권위자 권오진 셰프는 식재료 본연의 특성을 그대로 살리는 건강한 요리를 제안한다. 그는 요리가 단순히 ‘맛’만 있기보다,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면서 맛을 챙겨야 한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흔히 비건 요리는 곧 맛이 없는 요리라는 선입견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맛이 없는 식재료는 없죠. 재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알맞게 요리하고 또 그 맛에 익숙해지면 비건 요리도 일반 요리 못지않게 맛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가 자연주의 요리를 추구한 것은 아니었다. 과거 권오진 셰프는 국내외 유명 호텔의 셰프로 일하며 화려한 경력을 쌓아가던 중 언젠가부터 자신의 안이 텅 비어가고 있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호텔에서 일하며 조미료와 각종 양념으로 음식을 만들게 되는 데요. 사실 양념은 주 식재료가 충분한 맛을 내지 못할 때 필요한 것으로 본 재료의 맛을 가립니다. 이렇게 그저 고객의 입에 음식이 들어가는 순간만을 만족시키기 위해 요리하는 것이 아쉬웠죠.”

그는 바로 앞에 놓인 진급의 기회까지 마다한 채 더 많은 이들에게 정직한 자연의 맛을 일깨워주겠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바로 ‘작은 텃밭’이라는 의미를 지닌 주말농장 ‘르 끌로조’다.

르 끌로조에서 권오진 셰프는 온전한 자연의 힘으로 재배한 작물을 재료 삼아 비건 요리를 연구하고 선보이고 있다. 그의 농장에는 아티초크, 토종 감, 인디언 감자, 화이트 당근, 골든 베리 등 국내외 다양한 품종의 작물들이 자란다.

“예전에 시골 어른들이 자급자족을 위해 텃밭을 일구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여유를 가지고 재배하고 또 내가 먹을 음식이기에 정성을 더 들입니다. 르 끌로조는 속도와 양에 대한 압박을 내려놓고 계절의 변화를 충실히 따르는 곳이에요. 이렇게 한창 무르익었을 때를 기다리다 맛보는 식재료는 그야말로 짝 찬 맛을 냅니다.”

비거니즘, 그가 요리를 대하는 자세

권오진 셰프가 고집하는 요리 방식은 식재료 원래의 모양을 오롯이 살리며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요리하는 것이다. 독소를 빼거나 소금이나 후추 같은 최소한의 간만 맞춰도 충분하다고 한다. 필요 이상의 영양을 제공하는 현대인의 육식 위주의 식사는 어쩌면 욕심이라고.

비거니즘은 일반적으로 고기를 먹지 않는 식생활을 포함해 생활 전반에서 동물성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삶의 방식을 일컫는다. 인간 중심 주의에서 벗어나 지구에 살아가는 존재 모두를 고려하는 넓은 개념이다.

“자연과 인간은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비거니즘을 통해 자연을 존중하고 지켜주면 지구는 우리에게 훌륭한 식재료를 제공해요. 식재료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함을



갖게 되고, 좋은 음식으로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렇듯 저는 비거니즘을 곧 인간과 지구 사이의 오가는 ‘베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비거니즘에 관심이 생긴 사람들에게 먼저 들판과 발로 가서 자연의 먹거리와 친해질 것을 권한다. ‘작물이 이렇게 예쁘게 자라는구나’, ‘이런 촉감을 가지고 이런 색을 띠는구나’를 눈과 손으로 느끼는 것부터 비거니즘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한다. 처음엔 낯설게 느껴지는 비건 요리일 수 있지만 어느새 건강한 음식이 곧 맛있는 음식임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

“일단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지금 한창때인 제철 작물은 물을 빨아당기는 속성이 있어 맛이 순한 데요. 이때 열을 가하면 물러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생으로 먹거나 샐러드로 만들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봄철에 나온 양파로 양파 샐러드, 양파 김치, 양파 피클을 만들어보길 추천합니다.”

이날 권오진 셰프가 선보인 ‘키다리 파프리카와 채소 글라세’, ‘텃밭 해시브라운 감자와 토마토 콜리’ 요리에는 직접 키운 감자가 재료로 쓰이고 소금, 설탕, 비건 버터 외 별도의 조미료가 첨가되지 않았다. 순하고 담백한 맛을 내는 이 요리가 자연을 사랑하며 꾸밈없이 살아가는 권오진 셰프의 모습과 닮은 듯했다.

소중한 자연을 더 오래 더 기쁘게 만나기 위해

권오진 셰프는 환경 보존과 관리에 대한 중요성에 특히 목소리를 높이며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자연에 나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당장 불편함이 없다고 해서 마구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하면 결과적으로 인간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길이라는 것이다.

“몸 건강과 지구 건강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염된 지구의 공기와 물을 먹고 자란 식재료가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농축된 오염물을 먹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 이게 바로 우리의 먹거리가 된다는 것이니 큰 문제인 거죠.”

이어서 앞으로의 방향을 묻는 말에 그는 음식이 우리 식탁에 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공유할 수 있는 큰 농장과 키친을 만들고 싶다고 답했다.

“작물의 성장부터 지켜보고 수확 체험과 요리 기회까지 제공하는 일종의 힐링 코스를 제공하고 싶어요. 이곳에서는 어른부터 아이까지 자유롭게 요리 세계를 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 속에서 요리하며 맑은 자연이 얼마나 위대하고 이로운 것인지를 몸소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자연으로부터 받은 이 기쁨과 행복을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은 게 저의 진심입니다.”

가뭄에 타버린 농심... 우리가 해야 할 일

글. 박상욱 JTBC 기자

“역대 최악의 가뭄이 찾아왔다!” “○○댐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연일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댓글창은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중부와 남부로 나뉜 강수 양극화로, 다수의 네티즌이 가뭄을 ‘내 일’로 느끼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중부와 남부 지방의 연 강수량은 각각 1,454.7mm, 922.2mm로 역대 가장 큰 폭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남부지방은 강수량이 그저 적은 것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가뭄일수는 무려 227.3일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가뭄은 1년째 계속되고 있고요.

지역별로 들여다보면 격차는 더욱 커집니다. 수도권 연 강수량은 무려 1,750.4mm. 평년의 132.6%에 달했습니다. 강수량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 깊은 상처를 남겼죠. 평온해야 했던 퇴근길은 악몽으로 바뀌었으며, 보금자리는 물에 잠겼습니다. 같은 기간, 광주-전남지역의 강수량은 854.5mm로, 수도권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지난 3월 중순, 호남지역 일대 곳곳을 샅샅이 살피봤습니다. 1박 2일의 출장 기간 동안 장장 1,300km의 거리를 이동했죠. 나주호의 물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바닥 곳곳의 민물조개 껍질만이 이곳에 물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유일한 힌트였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흙먼지가 일었습니다. 나주평야 일대의 농민들은 하나같이 무거운 걱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영산강이 있어 괜 찮다”던 어머니는 이웃 마을의 농사 걱정을 짊어지고 있었고, 당장 마늘과 소풀이 말라가던 아버님은 “비 예보가 있던 날, 기껏

기대해 봤더니 5mm도 채 안 내리더라”라며 혀를 찼습니다.

차를 타고 마을을 옮겼습니다. 보리 이모작이 한창인 곳이었습니다. 얼핏 초록빛을 띄고 있어 ‘여긴 따로 물을 대는 건가?’ 싶어 두렁에 있던 농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답을 듣기도 전, 그의 표정을 통해 무지에서 비롯된 우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뿌리도 제대로 내리지 못한 보리는 힘없이 뽑혀 나왔고, 그렇게 농부의 손에 들린 보리의 끝은 전부 노랗게 타버린 상태였습니다.

“기후변화가 아주 심각하죠. 이제 이렇게 여름이면 온도가 너무 고온으로 올라가버리니까 농사짓기도 앞으론 무진장 힘들 것 같아요. 수확량도 그렇고, 식량 자급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가 좀 걱정되죠.”

농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걱정을 쏟아냈습니다.

“앞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기후변화가 이렇게 더 심각해진다면 앞으로 더 문제가 있겠죠. 우리 후손들이 조금 편히 살아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타버린 것은 보리 끝만이 아니었습니다. 보리 끝도, 그의 마음도 타들어가는 모두 매한가지였죠. 올해만 ‘예외적인 가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후변화가 가속화할수록 한반도의 강수량은 늘되 강수일수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폭우와 가뭄이 함께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농부의 마음을 넘어 우리 모두의 밥상을 뒤흔듭니다. 여름철엔 폭우가, 여름을 제외한 계절엔 가뭄이 찾아오고, 기온까지 급등하면서 농업 생산량엔 특히나 우리의 주식인 쌀의 생산량엔 엄청난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모내기를 하고 나면 벼는 자라나 꽃을 피웁니다. 그 꽃이 지고 나면 쌀알이 열리죠. 현재 쌀알이 열리는 비율(등숙률)은 92.2%입니다. 하지만 2060년대엔 등숙률이 51%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쌀알 가운데 깨진 곳 없이 오롯한 모습을 한 쌀알, 정상립의 비중은 현재 73.1%에서 2060년대 46.5%로

급감할 걸로 예상됩니다. 최근 쌀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사회적 갈등과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소비량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생산량이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빨라질 지경입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생산량의 감소를 넘어 ‘변동성의 증가’ 역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후 변동성이 커지면서 정교한 수급 조절 정책을 세우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미 미래는 예견됐습니다. 폭우와 가뭄의 동시 증가, 기온의 상승, 그로 인한 식량 안보 위기.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기후변화 대응의 두 축, 완화(Mitigation)와 적응(Adoptation)이 그 답입니다. 완화에 맡 그대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일 테고, 적응은 바로 물을 자원으로써 가치 있게 활용하는 일일 겁니다.



장엄하고 청정한 자연을 간직한

스위스



루체른 호수의 탁 트인 전경

다양한 하이킹 코스와 대자연은 두 발로 걸으며 친환경 여행을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여행이 주목받고 있다. 청정한 자연을 오롯이 경험하며 그곳에서 편안히 쉴 수도 있고, 볼거리와 즐길거리에 흠뻑 빠질 수도 있다. 그렇기에 스위스로 떠나는 친환경 여행이 큰 의미가 있다.

글. 임산하 출처. 스위스관광청

스위스 여행의 필수 코스, 루체른

산과 계곡을 좋아하거나, 흐르는 강에 뛰어들거나, 유네스코 세계유산 탐험하고 싶다면 스위스가 해답이 될지도 모른다. 그 어느 곳보다 다채로운 풍경을 자랑하는 스위스는 마테호른산, 아이거산, 융프라우산 같은 잘 알려진 산에 오르거나 맑고 투명한 강과 호수 속으로 풍덩 뛰어들어 수영을 즐겨도 좋다. 이처럼 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스위스는 차원이 다른 청정함과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스위스를 여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도시 중 한 곳이 루체른(Lucerne)이다. 에메랄드빛 호수가 그림 같은 풍경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스위스 중심을 여행하기 좋은 도시이기 때문이다. 루체른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카펠교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지붕 달린 목조 다리 중 하나다. 그래서인지 여행객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도 인기 만점인 장소다. 특히 석양빛이 물드는 해 질 무렵에는 더욱이 우아한 정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타이밍이다. 구시가지에는 근사한 벽화가 그려진 건물과 멋진 조각상 등이 즐비해 중세도시를 연상케 한다.

동화 같은 마을, 마이엔펠트

스위스를 여행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동화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기분을 선사한다. 특히 마이엔펠트(Maienfeld)는 꿈과 영감을 주는 마을이 아닐까? 이름만 들으면 고개를 가웃거리던 사람들도 동화 <하이드>의 배경이 된 마을이라고 하면 금세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스위스 작가 요한나 슈피리는 마이엔펠트의 작은 마을에서 <하이드>를 썼다. 하이드의 오두막이나 하이드가 뛰놀던 들판 모두 이곳을 무대로 삼았다.

마이엔펠트는 하이드 빌리지로 오르기 위한 베이스캠프 같은 마을로,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하이드 오두막이나 하이드 빌리지까지는 조금 걸어야 한다. 아름다운 포도밭과 마을길, 작고 예쁜 분수들은 마치 동화 속을 걷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마터호른산

스위스는 전문 산악인은 물론 산행 초보자 모두에게 천국 같은 곳이다. 알프스를 중심으로 트레킹과 산악 등반이 가능한 곳이 여럿 있으며, 친환경 자전거로 여행을 다니기에도 좋다.

체르마트 마을에서 남서쪽으로 10km 떨어져 있는 마터호른산(Matterhorn)은 스위스와 이탈리아 국경지대에 위치해 있다. 이 산은 해발 4,478m로 카멜레온처럼 시시각각 다른 자태를 뽐낸다. 가파른 피라미드 모양의 정상까지 오르기 위해서는 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등반 기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문 산악인이 아니더라도 산 가까이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산악열차와 케이블카를 이용해 전망대에 올라 마터호른을 감상하는 것이다. 산꼭대기의 종착역은 해발 3,820m에 위치해 있으며, 알프스에서 가장 높은 케이블카 정류장으로 유명하다. 이외에도 패러글라이딩, 트레킹 등을 통해 장관하게 솟아 있는 고봉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만년설 덕분에 한여름에도 스키, 스노보드를 즐길 수 있어 전 세계 여행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툰 호수

툰 호수(Lake Thun)는 베르너 오버란트(Bernese Oberland)에 속한 마을 툰(Thun)과 인터라켄(Interlaken) 사이 알프스 북쪽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최근 tvN 예능 프로그램 <텐트 밖은 유럽>에 툰 호수가 나오면서 우리에게 더 친숙해졌다. 호수 주변에는 니젠, 슈톡호른 및 니더호른 등의 봉우리들이 있으며, 호수와 알프스의 아름다운 경관을 만끽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맑고 깨끗한 툰 호수를 앞마당 삼아 캠핑할 수 있어 낮과 밤을 오롯이 즐기기에 그만이다.



빙하특급

빙하특급(Glacier Express)은 체르마트와 생모리츠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그 길이만 총 300km에 달한다. 알프스의 험준한 지형들을 관통하는 빙하특급은 '특급'이라는 이름과 달리 총 7시간 30분이 걸리는 세상에서 가장 느린 열차로 알려져 있다. 천장을 빼고는 모두 파노라마 통창으로 되어 있어 바깥 경치를 감상하는 데 딱이다. 코너를 돌 때마다 열차 앞에서는 열차의 뒷모습이, 뒤에서는 앞모습이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 재미도 있다. 빙하특급은 티켓과 별도로 사전에 반드시 좌석을 예약해야 한다. 좌석 예약은 이용일 3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치즈 фонд뤼

2~3가지의 치즈를 약간의 화이트와인과 녹말가루를 넣어 함께 녹인 다음, 주사위 모양으로 자른 빵을 찍어 먹는 스위스 대표 음식이다. 눈으로 뒤덮인 추운 날씨 때문에 딱딱해진 치즈와 빵을 좀 더 부드럽게 먹기 위해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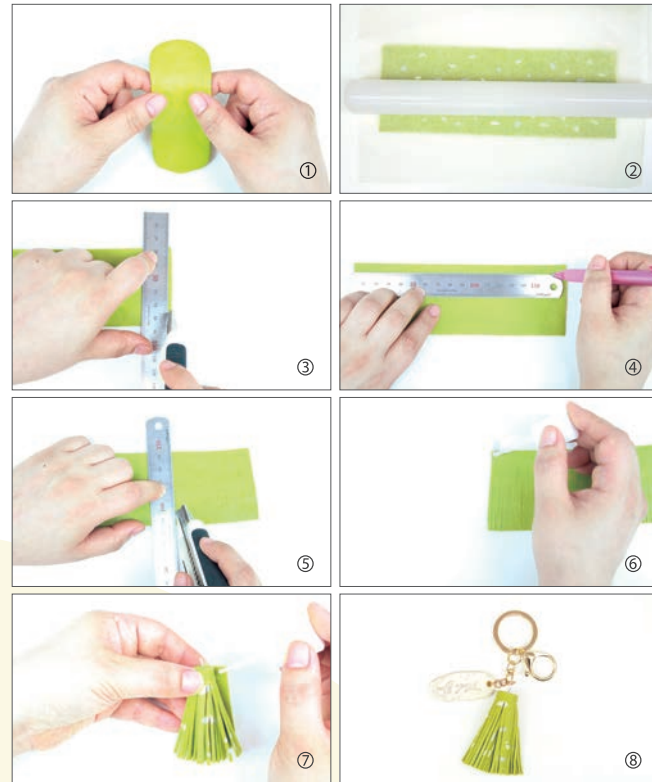
어린 시절 자주 가지고 놀던 점토를 생각나게 하는 폴리머클레이. 잊을 수 없는 손맛과 아련한 추억으로 오감을 만족시키는 폴리머클레이로 아기자기한 소품을 만들어보자.

글. 이종철 도서 출처. <폴리머클레이 클래스>, 김미현 지음, 도림북스

손으로 조물락조물락 만드는 폴리머클레이

준비물 : 클레이, 종이포일, 밀대, 전용 칼, 볼펜, 쇠자, 끈, 접착제, O링, 오븐

- ① 클레이를 반죽해 손으로 넓게 펴주세요.
- ② 종이포일을 덮고 밀대로 밀어서 평평하게 만든 후 오븐에 구워주세요.
- ③ 네모 모양으로 클레이의 사방을 반듯하게 잘라주세요.
- ④ 클레이 뒷면의 윗부분 약 1cm 지점에 볼펜으로 선을 그어주세요.
- ⑤ 선에서부터 수직으로 반듯하게 2~3mm 간격으로 잘라주세요.
- ⑥ 끈을 반으로 접은 다음 클레이 끝부분에 접착제를 발라 붙여주세요.
- ⑦ 클레이를 돌돌 말아 접착제로 붙여주세요.
- ⑧ 태슬을 O링으로 연결해 키링을 완성해 주세요.



태슬 키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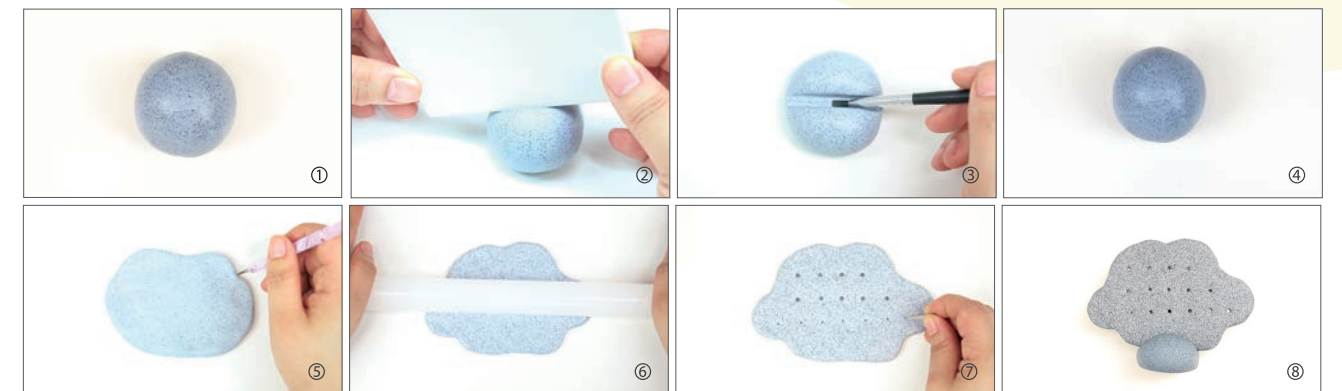
구름미 귀걸이 정리대

도자기 같은 소품 만들기

클레이 아트는 다양한 색깔의 점토로 여러 가지 모양의 소품이나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최근에는 폴리머클레이가 클레이 아트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오븐에 구워내면 도자기와 같은 느낌이 나는데, 크기에 비해 가벼운 장점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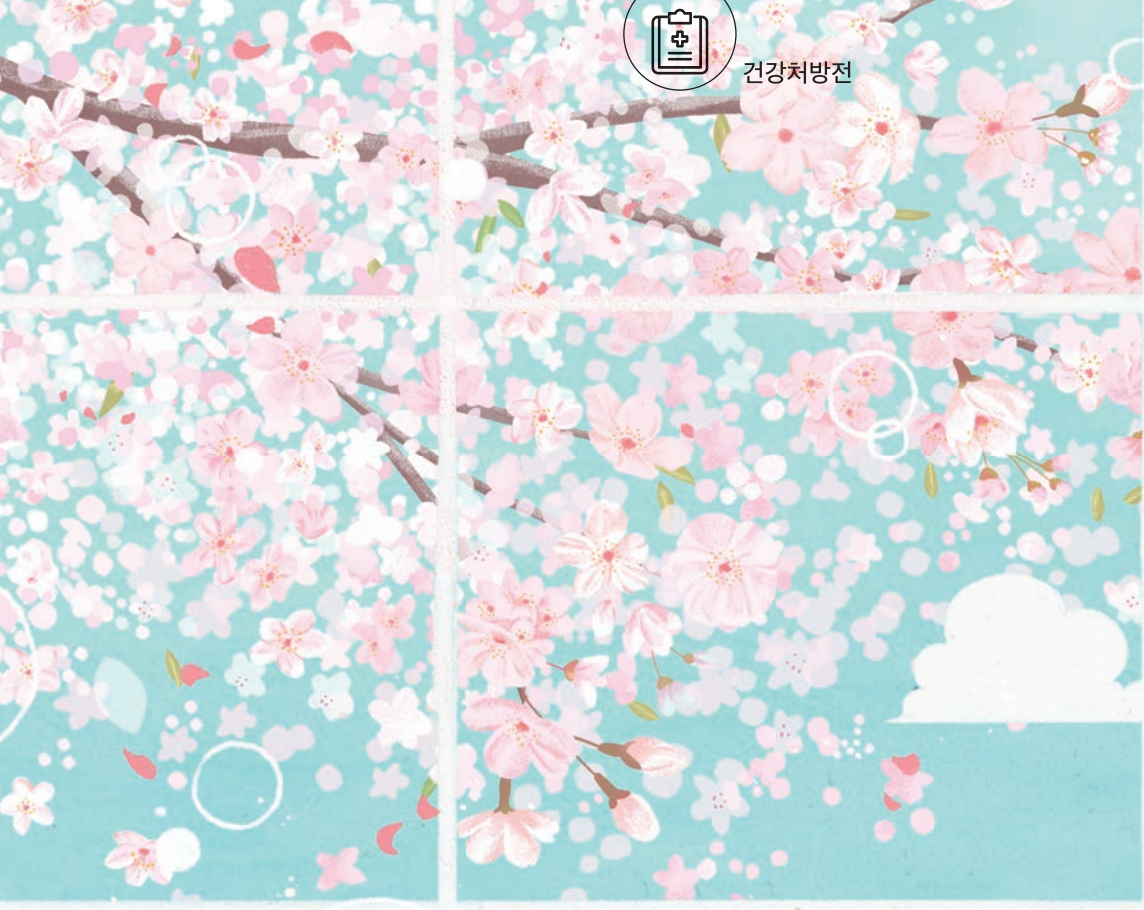
<폴리머클레이 클래스>의 김미현 작가는 “폴리머클레이는 액세서리, 소품, 생활용품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도자기의 경우 가마에서 구워야 하고, 색깔을 하나하나 칠해줘야 하지만, 폴리머클레이는 자체에 색깔이 입혀져 있고, 오븐에 10분 정도만 구워내면 쉽게 완성할 수 있어 일상에서 활용도가 무궁무진한 재료”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색상이 다양하고 자연스러운 색 혼합이 가능해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드는 데 효과적이다.

준비물 : 클레이, 붓, 타일, 밀대, 도트봉, 오븐



- ① 클레이를 동그랗게 만들어 주세요.
- ② ① 위에 두꺼운 타일로 가운데를 눌러 홈을 내주세요.
- ③ 홈을 누르면서 거칠어진 부분은 스펀지 붓으로 닦아 받침대를 완성해 주세요.
- ④ 클레이로 동그랗게 만든 다음 납작하게 눌러 주세요.

- ⑤ 구름 모양으로 자유롭게 만들어주세요.
- ⑥ ⑤를 밀대로 밀어 평평하게 펴주세요.
- ⑦ 도트봉으로 점을 찍어 구멍을 뚫어주세요.
- ⑧ 받침대와 함께 오븐에 구워주세요.



봄날이면 꾸벅꾸벅 몰려오는 춘곤증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점심 식사 후에 몸이 노곤하고 나른해지면서 평소에 잘 자지 않는 낮잠까지 자게 된다면 춘곤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낮잠을 자게 되면 밤에는 숙면을 이루기 어렵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는데, 춘곤증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 화창한 봄날을 만끽해 보자.

글 이종철

오후만 되면 쏟아지는 잠

봄철에는 충분히 자도 졸음이 쏟아지고, 식욕이 떨어지고, 몸이 나른해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대부분 춘곤증을 의심하는데, 춘곤증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 몸이 잘 적응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일종의 피로 증상이다. 춘곤증은 봄철에 1~3주 동안만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편이다. 나른한 피로감, 졸음,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두통, 소화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증상이 해소되지 않고 지속되면 만성으로 발전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춘곤증은 규칙적인 수면을 방해해 불면증이나 늦잠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봄철의 모든 피로를 춘곤증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극심한 피로나 체중 감소를 동반하는 경우, 계단을 올라가거나 빠른 걸음으로 걸을 때 호흡이 곤란한 경우, 밤에 옷이 젖을 정도로 식은땀이 나는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춘곤증을 극복하는 방법

춘곤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영양 보충을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겨울 동안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가 부족했다면 봄철에 구할 수 있는 냉이, 달래, 미나리 같은 봄나물과 각종 과일 등을 통해 이를 보충해 주는 것이 좋다. 가벼운 운동은 피로 해소와 춘곤증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된다. 겨우내 움츠러든 근육이 따듯해지는 날씨에 잘 적응하려면 가벼운 스트레칭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며 자칫 나른하고 졸리기 쉬운 낮 시간의 피로 해소에 효과적이다. 평소 하던 운동에 5~10분간의 스트레칭만 더해도 좋고, 점심시간에 20분 정도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도 도움이 된다.

적당한 낮잠은 춘곤증 해소를 돕는다. 다만 낮잠은 20분 이내로 자는 것이 좋다. 20분 이상 자면 오히려 잠에서 깨기가 힘들고 깬 후에도 여전히 졸린 듯한 기운이 남아있을 수 있다. 또 낮잠을 길게 자면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다음 날 더 피곤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화사하게 핀 벚꽃과
향긋한 커피가 함께한 하루



‘꽃천지’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 부산울산경남 지역협력단(이하 부울경 지역협력단)으로 커피차가 달려갔다. ‘수(水)타벅스가 간다’ 아홉 번째 주인공이 된 이들은 노란색 커피차가 도착하자 기대와 흥분으로 환호성을 질렀다.

글. 최행자 사진. 한유리 영상. 이덕재





직원들을 위해 커피차가 출동

지난 3월 27일, 커피 트럭이 자리를 잡은 곳은 벚꽃이 활짝 핀 부울경 지역협력단 건물 앞이었다. 어여쁜 노란색 커피차가 자리를 잡자 직원들이 기대와 흥분으로 모여들었다. 직원들의 즐거움을 지켜보던 김호영 차장 또한 덩달아 웃으며 반겼다. 그는 이번 이벤트를 신청한 주인공이었다.

“부울경 지역협력단이 위치한 경상남도 창원시는 벚꽃 그 자체인 도시인데요. 아름답게 피는 벚꽃을 어떻게 하면 더 완벽하게 즐길 수 있을까 하다가 향긋한 커피를 들고, 벚꽃을 바라보면서 보고 싶었던 사람들과 산책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벚꽃이 피는 시기에 맞춰 ‘수(水)타벅스가 간다’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부울경 지역협력단은 인근에 커피전문점이 없어 점심시간에 커피전문점까지 다녀오기에도 쉽지 않은 터라 직원들은 오늘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한다.



수돗물에 대해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부서

부울경 지역협력단은 수돗물에 대해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부서다. 경상남도 창원시, 김해시, 밀양시, 남해군, 함안군, 거창군, 합천군 등 7개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지방상수도의 누수를 저감하는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래 함양군까지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작했는데, 함양군 현대화사업은 지난해 6월, 최종 유수율 * 87.7%를 달성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최환수 차장은 “이외에도 김해시, 밀양시, 함양군의 수돗물 수질 개선을 위한 SWM(Smart Water Management)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국가공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인 수질검사센터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울경 지역협력단이 보유한 기술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현대화사업의 사후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지운 대리는 “오는 5월에 사업이 종료되는 남해군은 성과목표인 유수율 85%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이 종료되는 거창군, 함안군, 합천군과 다른 지자체 사업들도 목표 달성을 위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라고 말했다.

부울경 지역협력단은 7개 지자체에 분산돼 있어 얼핏 보면 소통이 어려워 보이지만 오히려 자주 연락할 수 있는 소통 플랫폼으로 생동감이 넘치는 부서다.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는 온·오프라인으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안전·행복 Day’를 운영하고 있다. 각 부가 돌아가면서 회의를 주관하고, 재능기부 등 즐겁고 유익한 시간으로 채우고 있다.

김지현 대리는 “부울경 지역협력단의 자랑은 수평적인 조직문화라고 생각해요. ‘안전·행복 Day’는 벌써 1년이 넘어 하나의 문화로 정착했어요. 직원 칭찬트리를 제작하거나 안전·청렴 슬로건을 공모하는 등 직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기획해 소통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있어요”라고 자랑했다.

* 유수율: 정수장에서 생산한 전체 수돗물량 중에 가정에서 실제 사용하여 요금으로 부과된 물량의 비율. 즉, 유수율이 높을수록 관로에서 누수량이 적다는 의미임.



커피차가 선물한 행복한 시간

커피차가 준비를 마치자 머그컵과 텀블러를 손에 든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과장님,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오랜만이예요. 대리님”, “전화 통화로 목소리만 듣다가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여기저기서 오랜만에 만난 듯 반가운 인사를 나누는 소리가 가득했다.

김문기 부울경 지역협력단장은 “평소에 직원들과 커피 한잔 마실 시간을 내기도 쉽지 않은데요. 직원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 역시 기분이 좋네요. 베리 굿(very good)”이라고 미소를 지었다.

김종광 부장은 “직원들이 힘든 현장에서 다 같이 고생하고 있는데요. 커피차 덕분에 힘도 나고 선물을 받은 것 같아 좋아요”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심연지 사원은 “활짝 핀 벚꽃을 보니 마음도 몽글몽글해지고 시원한 음료도 마시니까 일할 맛이 나는데요”라며 해맑게 웃었다. 조민주 사원은 “직원들과 함께 음료를 마시며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좋았어요”, 감현동 사원은 “이런 이벤트 덕분에 오랜만에 만난 직원들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이었어요”라며 소감을 전했다.

특히 현대화사업소 직원들이 준비해 온 그 지역의 명물 간식까지 더해져 분위기는 한층 더 무르익었다. 화사한 벚꽃 아래에서 음료를 마시는 직원들은 봄꽃처럼 환하게 빛났다.



수(水)타벅스가 간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수(水)타벅스가 간다’ 영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mess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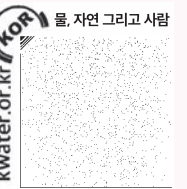
아름다운 벚꽃을 직원들과 함께 감상하며 커피로 플렉스 하고 싶어요!



김호영 차장

낙동강유역본부 부산울산경남 지역협력단

부울경 지역협력단에서 3년째 근무 중입니다. 창원시가 벚꽃으로 유명한 도시인데요. 각 지자체로 흩어져 있는 직원들이 이런 아름다운 경치를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갓 내린 커피로 플렉스(flex)한 기분도 느껴보고 싶어 ‘수(水)타벅스가 간다’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K-water 해외사업 30년의 발자취

K-water 해외사업의 역사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3년 중국 분하강 유역조사사업을 시작으로 여러 나라에서 사업역량을 펼쳐 온 K-water는 글로벌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사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글_ 최행좌 출처_K-water



축적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으로 지구촌 물복지 실현

K-water는 국내 물관리를 통해 축적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물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곳곳에 물복지를 실현하고, 물분야 국제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며 글로벌 물기업으로서 지구촌의 물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 있다.



K-water는 지난 30여 년간 ODA부터 투자사업까지 전 분야에 걸쳐 해외사업에 진출 중이다. ODA사업은 1993년부터 현재까지 30여 개국 110여 개 사업을 추진했으며, 2012년 공사 최초 투자사업인 파트린드 수력발전사업을 시작해 현재 5개국 6건의 투자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륙별로는 ODA와 투자사업을 합해서 아시아 11개국 25개 사업, 유럽 1개국 1개 사업, 오세아니아 1개국 2개 사업 등이다.



인도네시아 까리안 광역상수도사업은 까리안댐을 수원으로 해 자카르타 등 3개 지자체에 일일 약 40만 톤의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K-water가 타당성 조사 등 초기부터 사업개발을 주도해 왔으며, 민관협력사업(PPP)으로서 국내업체와 해외에 진출한 녹색산업 모범사례다. 올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해 2025년 10월 용수공급 개시 후 30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까리안 광역상수도사업



해외사업

K-water는 수자원, 수도, 에너지, 도시 분야 등 물관리 전 주기에 걸쳐 해외사업 확대를 추진 중이다.

30년을 맞이한 K-water의 해외사업, 글로벌 물복지를 실현합니다

K-water의 해외사업이 30주년을 맞았다. K-water는 1993년 ODA사업을 시작으로 2009년 공사 최초 투자사업 진입(파트린드 수력발전사업), 2016년 AWC 창립으로 아시아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등 전 분야에 걸쳐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K-water는 글로벌 상생가치를 지향하며 국민과 세계에 희망을 주는 해외사업으로 글로벌 물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글. 최행좌 출처. K-water



GLOBAL BUSINESS

물관리 전 주기에 걸쳐 글로벌 물문제 해결

K-water는 지난 50여 년간 축적된 국내 물관리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적 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사업부터 투자사업까지 전 분야 해외사업에 진출하며 30여 년간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K-water는 현재까지 40여 개국에서 130여 개 사업을 수행하며, 지구촌 물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소수력발전소의 건립과 운영 관리로 에너지 확보에 도움을 줬다. 몽골과 페루에서는 수도사업을 통해 식수 문제 해결에 이바지했으며, 캄보디아와 파키스탄에서는 댐 개발사업 참여로 전력 부족과 홍수 예방 등의 현안을 해소했다.

그 결과 K-water는 물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글로벌 물 전문기업으로 성장했다. 지난 2016년 아시아물위원회(AWC: Asia Water Council)를 설립해 아시아 지역의 물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으며, 아시아 국회의원 물 협의회(AAWC: Asia National Assembly Water Consultative

Board) 플랫폼을 토대로 27개국, 각종 국제기구 및 3대 MDB(다자개발은행) 등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물 아젠다를 주도하고 있다.

K-water는 이러한 다양한 해외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상생가치를 실현하며, 국민과 세계에 희망을 주는 해외사업으로

1. 슬로몬 티나 댐 조감도



확장하고 있다. 수자원, 수도, 에너지 등 물 관리 전 주기에 걸쳐 국제협력을 리딩하며, 글로벌 물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글로벌 협력 플랫폼 활용

물산업 해외 진출 지원

K-water는 국제협력으로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 해외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

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K-water는 올해 글로벌 협력 플랫폼을 활용해 물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 수출 지원 및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외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올해 인도네시아 까리안 광역상수도사업, 솔로몬 수력발전 및 조지아 수력발전사업을 착공해 1조 7천억 원 규모의 해외사업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 녹색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호주 양수발전 등 14개 신규사업을 추진하며 조력, 해수담수화, 초순수, 그린수소와 같은 신녹색사업의 해외 진출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 프랑스,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에 설치된 거점본부의 G2G 네트워크를 강화해 민간 녹색수출을 지원하고, 녹색전환 이니셔티브(GTI: Green Transition

- 2. 파키스탄 파트린드담 건설사업 전경(2016년 11월)
- 3.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사업 공동추진협약식(2009년 4월 30일)
- 4. SDG6 달성을 위한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역량강화 PMC 초청연수(2022년 8월 18일 ~ 9월 6일)



5. 솔로몬 티나 수력발전사업 착공식(2022년 11월)

Initiative) 등을 글로벌 협력의 장으로 활용하며, 국제환경협력센터 운영을 통해 그린 ODA 사업을 발굴·시행할 예정이다.

녹색산업 해외 수출의 발판 마련

K-water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녹색산업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 까리안 광역상수도사업이다.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는 약 1천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는 메가시티다. 그러나 수돗물 보급률은 62% 수준에 그치고 있었는데, 물 부족 문제와 지하수 과다 취수로 인해 지반침하, 염해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자카르타 지역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과의 G2G 협력을 바탕으로 까리안담을 수원으로 해 자카르타 등 3개 지자체에 일일 약 40만 톤의 정수를 공급하는 '까리안 광역상수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 사업은 K-water가 타당성 조사 등 초기 설계부터 건설까지 참여한 민간협력 투자개발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으로서 국내 업체와 해외에 진출한 녹색산업 모범사례로 꼽힌다. 올해 금융조달·설계·조달·공사(EPC) 계약 등 실시협약 선결 조건을 이행하고,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해 2025년 10월 용수공급을 개시한 후 30년간 운영관리에 들어간다. 이외에도 K-water는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사업에서 공사 최초로 126억 원의 해외 탄소배출권(418천 톤)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최근 환경부 ODA 대행사업 수행과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수자원·상하수도 분야 및 기후변화에 대비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적극 추진해 신기후체계 대응에 기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K-water는 수자원, 수도, 에너지, 도시 분야의 핵심기술로 녹색산업 모델을 다각화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와 함께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순순환 체계를 구축하다



폐플라스틱을 업사이클링 해 순순환 체계를 만들고 지역상생을 이룬 사례가 있다. K-water는 주암댐 주변의 지역사회와 협업해 폐플라스틱으로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을 실천하며, 지역주민들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글: 최행좌 출처: K-water



폐플라스틱의 지속가능한 해결 방안을 찾다

전라남도 순천시에 위치한 주암댐은 저수용량이 7억 700만 톤에 이르는 다목적댐이다. 주암댐은 광주·전남지역의 주요 식수원이자 여수국가산업단지과 광양국가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때문에 댐 상류지역은 폐플라스틱 등 쓰레기로 인한 오염을 예방하고, 수질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류해도 문제지만, 쓰레기를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물속으로 가라앉아 수질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맑고 깨끗한 물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 일환으로 K-water는 순천시, 지역주민, 환경 및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폐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결 방법을 모색했다. 바로 '주암댐 상류 플라스틱 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업사이클링 순환 체계 조성'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이 프로젝트는 플라스틱을 줄여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플랫폼을 운영해 지역사회, 주민, 주암댐지사가 함께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나아가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지역상생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폐플라스틱을 업사이클링 해 수익 창출에 기여하다

K-water는 지역사회와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지역공동체와 함께 올바른 자원 분리배출 캠페인, 수거·분류 체험행사, 업사이클링 제품 개발 및 전시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플라스틱, 비닐 등의 재활용 기술을 개발해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주암댐 상류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며 발생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환경 캠페인을 실시해 탄소중립의 중요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주암댐의 부유물 수거와 자원 분리배출 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댐 상류의 오염원을 저감하고, 지역주민들의 올바른 자원 분리배출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과 함께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예술작품을 제작해 지역 곳곳에 작품을 전시했으며, 플라스틱 대장간과 협업을 통해 업사이클링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K-water는 앞으로도 주암댐 상류 폐플라스틱을 수거, 분리, 세척하는 순환 체계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 수익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승주 사원

이정주 수석위원

김하영 대리

허윤희 사원

신지수 대리

섬세한 손끝으로 완성한 도자기

수자원운영처 직원 5명의 도자기 만들기

부드러운 점토로 단단한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도의 섬세함과 집중력이 필요하다. 자칫 방심하는 순간 공든 탑이 무너져내리거나 뜨거운 가마에서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섬세함과 집중력에 자신 있는 수자원운영처 직원들이 도자기 만들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날 직원들은 도자기를 빚으며 즐거운 추억도 함께 쌓았다.

글. 최행자 사진. 김범기

단단한 열의를 가진 주인공들

귀여운 캐릭터 접시와 크고 작은 그릇, 컵, 화병이 전시된 대전의 한 도자기 공방에 5명의 직원들이 들어왔다. “우와, 접시가 너무 귀여운데요”, “오늘 우리가 만드는 걸까요?”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가득한 이들은 수자원운영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정주 수석위원, 김하영 대리, 신지수 대리, 이승주 사원, 허윤희 사원이었다. 같은 부서라고 해도 직원이 60여 명에 이르다 보니 함께 무언가를 만들며 시간을 보내기가 쉽지 않았던 이들이 ‘어느 멋진 날’을 신청했다.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체험을 하며 평소에 하지 못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라는 김하영 대리와 “도자기 체험은 처음인데요. 잘 만들 수 있을지 걱정이 되지만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라는 신지수 대리, “사무실이 아닌 색다른 공간에서 특별한 경험을 공유하게 돼 두고두고 멋진 날로 기억될 것 같아요”라는 이정주 수석위원, “재미있는 경험을 같은 부서 직원들과 할 수 있어서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아요”라는 허윤희 사원, “부모님께 선물할 접시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접시가 완성될지 기대돼요”라는 이승주 사원까지. 이들은 수업에 대한 열의로 가득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물레 체험

앞치마를 입고 자리에 앉자 본격적인 도자기 만들기 수업이 시작됐다. 먼저 선생님의 설명으로 물레 체험을 시작했다. 물레



체험에서는 인당 3개의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데 이 중에서 진짜 도자기로 제작할 작품 1개를 선택하면 된다.

허윤희 사원과 이승주 사원이 물레 앞에 자리를 잡았다. 페달을 밟으며 양손으로 점토를 감싸고 원기둥 모양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며 부드럽게 반죽했다. 바로 ‘중심 잡기’다. 중심 잡기가 끝나자 점토 위에 손가락을 넣어 구멍을 뚫히니 금세 모양이 잡혔다. 물레 위에서 점토를 오므리거나 당기거나 할 수 있는데, 당기면 당길수록 그릇 모양이 나온다. 그것이 신기한지 이들은 작업 내내 미소가 끊이지 않았다. 중간중간 손에 물을 묻히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속도와 힘 조절이다. 속도와 힘 조절이 균형을 잃으면 한순간에 점토가 와르르 무너져내리기 때문이다. 단순해 보이지만 물레 체험이 손끝까지 집중력과 섬세함이 필요한 이유다. “점토가 정말 부드러워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릇과 컵이 나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허윤희 사원과 이승주 사원은 물레 체험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다.

“펜 접시와 함께 사용할 연필꽃이를 만들고 싶은데요. 물레 체험이 처음이라 그런지 생각처럼 만들기가 쉽지 않네요”라는 이정주 수석위원은 원하는 연필꽃이를 만들기 위해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했다. 신지수 대리는 “아래는 좁고 위에는 넓은 모양의 컵을 만들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네, 아래는 손을 오므렸다가 위로 갈수록 당겨주면 원하는 모양이 나올 거예요”

라고 선생님이 설명했다. “초등학교 때 물레 체험을 한 기억도 나고 정말 재미있네요”라며 김하영 대리가 경험자답게 컵 하나를 금세 완성하자 “컵의 중심이 정말 완벽한데요”라며 선생님의 칭찬이 이어졌다.

취향대로 만든 핸드빌딩 접시

물레 체험을 하고 핸드빌딩 접시 만들기가 이어졌다. 휴가래 쌓기, 두께와 높이 맞추기, 다듬기 순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원하는 디자인을 고르고, 평평한 점토 위에 밑그림을 그렸다. 나무칼을 이용해 테두리를 자른 다음 쇠 칼로 테두리를 싹싹 스크래치로 긁어내고 휴가래를 붙여줬다. 두께와 높이를 맞춘 다음 빈틈 없이 손가락으로 꼭꼭 눌러 다듬는 작업까지 꼼꼼하게 이뤄졌다. 마지막 단계인 물감으로 마무리하자 각자 원하는 모양의 접시가 완성됐다.

토끼 접시를 만든 이승주 사원은 “구우면 실제 크기보다 줄어든다고 하는데 가늠이 안 돼요. 접시는 내가 생각한 대로 만들 수 있어서 매력이 있었어요”라고 말하며 오늘 만든 접시와 컵을

어머니께 선물로 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만들기의 재능을 발견한 이정주 수석위원은 “처음에는 잘 만들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요. 생각보다 잘 만든 것 같아 만족해요. 사무실 책상 위에 두고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웃었다.

허윤희 사원은 “접시에 물감까지 칠해서 완성해 보니 정말 레몬 모양이 나와서 마음에 들어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평소에 예쁜 그릇 모으는 것을 좋아하는 김하영 대리는 “오늘 아보카도 모양으로 만든 접시를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생각하며 접시를 만들었는데요. 원하는 모양대로 나와서 좋았어요”라며 신지수 대리도 소감을 말했다.

완성된 접시와 컵이 신기한지 이리저리 살펴보며 인증 사진을 찍는 이들이 단단해진 도자기를 만나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뜨거운 가마에서 구워져야 비로소 완성되는 도자기처럼 이들에게 단단하고 견고한 추억이 쌓이길 기대해 본다.



남들 앞에 서면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거나 손발이 떨리고, 말을 더듬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나 평판에 민감한 사람일 수 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특히 신경이 쓰이는 사람들이다. 혹시 당신이 이런 성향에 해당하는 팀장, 선배는 아닐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꼭 참고만 있는 이들이 곧대로 보이지 않으면서 조언하는 방법은 없을까?

글. 최정우 심리상담사

곧대로 보이지 않게 말하고 싶어요



66

“팀원에게, 후배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곧대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죠?”
‘곧대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현명하게 조언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99

‘팀원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곧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흥 팀장은 오늘도 고민에 빠진다. 왜냐하면 팀원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못하기 때문이다. 곧대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걱정되는 것이다. 이처럼 조언 하나 쉽게 하지 못하는 팀장, 선배들이 있다. 이들이 곧대로 보이지 않게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자신의 조언이 틀릴 수도 있음을 먼저 얘기하자.

팀원이나 후배들이 상대를 곧대라고 여기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조언과 경험이 “무조건 맞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내 경험으로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무조건 맞았다”, “나 때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너도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태도다. 이는 팀원이나 후배 입장에서 공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무조건 자기 말이 맞다”라고 말하는데 누가 그 말을 듣고 싶을까? 조언하고 싶을 때는 이 말을 꼭 먼저 하자.

“현재 김 주임의 상황과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두 번째, 보스가 되지 말고 멘토가 되자.

대화할 때 보스(boss)로 보이지 않고 멘토(mentor)가 되는 것이다. 후배에게 단순히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사람은 보스다. 후배가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게끔 기회를 먼저 주는 사람은 멘토다. 즉 보스는 지시하는 존재라면, 멘토는 기회와 도움을 주는 존재다. 후배가 스스로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알려주는 멘토가 되어보자. 지금 같은 회사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당신의 후배, 팀원은 생각보다 능력 있는 존재라는 사실. 그러니 지시하지 말고 기회를 먼저 주고 대화를 하자.

세 번째, 후배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자.

조언할 때, 후배가 어떤 점을 잘못했는지 알려주거나 자신의 경험담을 자랑하듯이 늘어놓는 행동은 피하자. 단순히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으로 후배의 공감을 얻기란 힘들기 때문이다. 후배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때와 지금은 다른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되 후배의 문제와 이를 어떻게 연관시키느냐가 관건이다. 따라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할 때 후배의 문제 해결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연관성을 생각해 하며 말하는 게 중요하다. 자신의 경험과 후배의 문제 해결을 구체적으로 연결해 보자. “나 때는 말이야”라고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당신을 곧대로 만들지 않는다.

물 절약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K-water의 사업들, 여전히 어렵다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R코드를 통해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에서 퀴즈 정답을 맞히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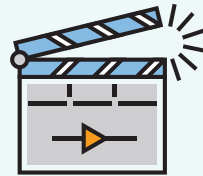
글. 최행좌 출처. K-water

Q. 일상에서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버리는 물, 잘 모았다가 사용하면 물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쌀을 씻을 때 나오는 쌀뜨물을 모아보세요. 쌀뜨물은 청소와 요리 등에 여러모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화분에 쌀뜨물을 부으면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비료와 영양제 역할을 합니다. 야채와 과일을 씻을 때엔 큰 통에 물을 받아서 사용하면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야채와 과일을 씻은 물은 버리지 마세요. 설거지할 때는 젖은 행주로 그릇을 닦아 애벌 세척하고, 모아뒀던 야채와 과일을 씻은 물은 설거지통에 옮겨 담아 사용할 수 있어요. 주방 세제는 적정량을 물에 풀어 사용해야 환경오염을 줄이고, 그릇에 잔류 세제가 남지 않아 깨끗하게 설거지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설거지 방법으로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를 데친 물도 버리지 마세요. 시금치에 함유된 카테킨 성분이 기름기 제거에 효과적이라 주방 청소나 전자레인지 청소엔 천연 세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시금치 삶은 물에 행주에 적셔 부엌을 청소해 보세요. 인덕션이나 가스레인지 등에 묻은 기름때가 쉽게 닦입니다. 시금치 데친 물에 행주를 넣고 삶으면 표백제를 넣지 않아도 하얗게 삶아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탁할 때 빨래는 모아서 세탁하고, 추가 헹굼을 하지 않으면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물 절약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습니다.



영상 퀴즈 EVENT



QR코드를 통해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물 절약 꿀팁 함께 실천해요! 일상 속 제로웨이스트' 영상을 확인하고 정답을 남겨주세요!

Q1. 쌀을 씻고 난 물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Q2. 설거지할 때 젖은 행주로 그릇을 먼저 닦아 주는 것을 무슨 세척이라고 할까요?

이벤트 참여방법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에서 퀴즈 정답을 맞히면 선물을 드립니다.



이벤트 경품 커피 음료 쿠폰 20명
접수 마감일 4월 25일
선물 발송일 5월 15일경
※ 5월 20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70-5069-9512로 전화 주세요.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챗GPT

요즘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호기심에 사용하거나, 실효성을 느껴 사용하거나 이유는 다양하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사용한 사람은 없다는 챗GPT. 도대체 챗GPT가 무엇이길래 이처럼 열광할까?

도서 출처. <챗GPT시대 글쓰기>, 이세훈 지음, 매일경제신문사



챗GPT는 오픈에이아이(Open AI)가 지난해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이다. 챗은 채팅의 줄임말이고, GPT는 'Generated Pre-trained Transformer'의 앞 글자를 딴 것이다. 챗GPT는 사용자가 대화창에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에 맞춰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한다. 챗GPT는 인간과 비슷한 대화를 생성해 내기 위해 AI 기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챗GPT는 자료수집, 프로그램 코딩, 기사 작성, 노래 작사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가령 특정 주제로 기사를 작성하거나,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다. 작품을 학습시켜 짧은 소설을 쓰거나, 원하는 여행 장소나 일정을 입력하면 교통편이나 여행 일정에 대해 답변을 받을 수도 있다. 최근에는 챗GPT가 글을 쓰고 AI가 번역한 책이 출간되기도 했다.

챗GPT와 대화할 때 중요한 것은 질문이다. 질문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활용도 높은 답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질문하고, 사례, 수준, 범위, 용량 등 추가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할수록 좋다. 대화 전후 사항을 기억하므로,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질문을 반복해도 된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다. 챗GPT는 사용자가 무엇을 질문해도 그럴듯하게 대답하고 가끔 농담도 건넨다. 때문에 답변에 대한 정확도와 신뢰도는 사용자가 검증하고 판단해야 할 몫이다.

한편 지난 3월 14일, 오픈에이아이는 GPT 3.5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GPT-4를 출시했다.

www.openai.com

챗GPT가 방울이를 주인공으로 쓴 동화

4월에 대청호로 봄나들이를 가려고 합니다. 가족과 함께 대청호 여행을 즐기는 방울이의 이야기를 동화로 써주세요.

방울이는 가족들과의 대청호 봄나들이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외 활동을 좋아하는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호수의 잔잔한 물과 그림 같은 주변 환경을 빨리 탐험하고 싶었습니다. 대청호에 도착했을 때 방울이와 그의 가족은 맑고 푸른 물과 그들을 둘러싼 무성한 녹지의 광경에 반했습니다. 활짝 핀 벚꽃의 향기를 실은 산들바람이 얼굴에 스며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울이와 그의 가족은 호수를 탐험하기 위해 배를 빌리기로 결정했고, 그들은 아침에 노를 저으며 멋진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그들은 오리가 물에서 헤엄치는 것을 보았고 물고기가 벌레를 잡으려고 물 밖으로 튀어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방울이는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광경과 소리에 매료되었고 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사진을 찍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피크닉을 하기 위해 호수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방울이의 어머니는 샌드위치, 과일, 간식 등 맛있는 도시락을 준비했고, 가족들과 평화로운 주변을 둘러보며 식사를 즐겼습니다. 그들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웃고 수다가 떨어졌습니다.

챗GPT에게 필요한 내용을 얻어내는 방법

- 구체적으로 질문한다.
- 명확하고 간결한 언어를 사용한다.
- 맥락을 제공한다.
- 올바른 서식을 사용한다.
- 개방형 질문을 사용한다.
-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출처 @openai

FOCUS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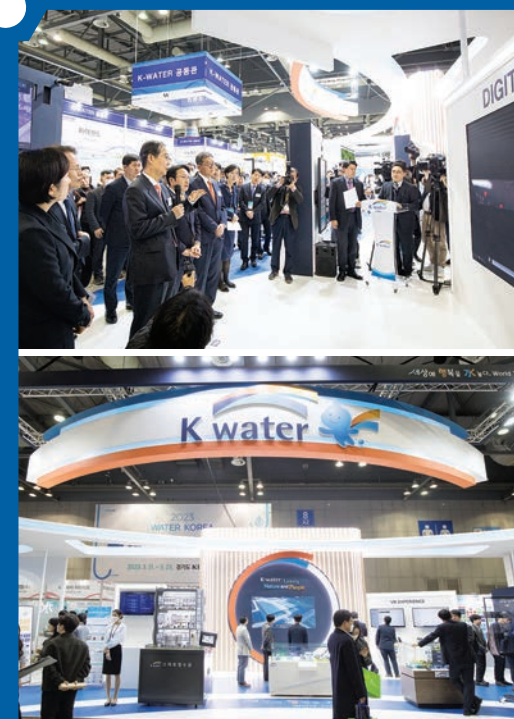


새로운 물의 가치, 함께 변화를 만든다

지난 3월 2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23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유엔(UN)이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문제 해결을 위한 각국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도 물이 주는 다양한 가치를 되새기고,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1995년부터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 기후변화로 인한 물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 기업, 국민 등 모든 주체가 함께 만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아 '함께 만드는 변화, 새로운 기회의 물결'로 주제를 정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화진 환경부장관, 유희동 기상청장, 배덕호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정경윤 K-water 부사장, 강기정 한국상수도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K-water 홍보관 및 공동기업관을 운영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200여 개사 물기업이 참여한 국내 최대 규모의 물산업 분야 전문 전시회인 '제20회 국제물산업박람회(Water Korea 2023)'도 지난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렸다. 국제물산업박람회는 국내 물시장을 활성화하고,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는 전시회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물분야 기업들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는 종합 박람회다. K-water는 홍보관에서 디지털트윈, 그린수소, 수열에너지 등의 모형을 배치해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홍보했고, VR 체험, AR 시연 및 방울이 찾기 이벤트 등을 개최했다. 또한 K-water와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기술을 홍보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공동기업관을 운영, 해외시장개척단, 미국 CES 혁신상 수상기업, 협력스타트업, 초순수기업, 해수담수기업 등 총 22개 기업들이 함께했다. 이외에도 전시장에서는 국내외의 주요 물기업들이 참관객을 대상으로 제품과 기술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세미나, 워크숍 등 부대행사도 열렸다.



'세계 물의 날'인 지난 3월 2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기념식이 열렸다. '함께 만드는 변화, 새로운 기회의 물결'이라는 주제로 열린 기념식과 더불어 '제20회 국제물산업박람회(Water Korea 2023)'도 열려 방문객들이 발길이 이어졌다.

글: 최행자 사진: K-water, 김범기

함께 만드는 변화, 새로운 기회의 물결을 만든다

2023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 개최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는 깨끗한 물 공급과 물관리 재해 예방, 물산업 육성을 물관리 정책의 삼각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배덕호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물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들이 세계 물 시장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과 규제 개선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아영
K-water 수도관리처 대리

"K-water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민에게 최상의 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기
에너지 대표

"플랜트 배관 여과장치인 스트레이너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 K-water 협력스타트업

아시아물위원회(AWC: Asia Water Council, 이하 AWC)가 대한민국 유일의 물 관련 특별인증 기관으로 'UN 2023 물 총회(Water Conference)'에 참가했다. AWC의 회장기관인 K-water는 녹색전환 이니셔티브 글로벌 사무국으로 지정되는 등 글로벌 물분야 플랫폼으로 인정받으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

글: 최행자 사진: K-water



AWC, UN 특별인증 기관으로 공식 참가

AWC는 2022년 8월 'UN 2023 물 총회' 특별인증 기관으로 선정되어, UN 본부 내에서 공식 부대행사를 신청 및 개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

유엔(UN)이 개최한 'UN 2023 물 총회(Water Conference)'가 지난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렸다. 1977년 마르델플라타(Mar Del Plata)에서 열린 UN 물 회의 이후 46년 만에 열리는 물 관련 UN 공식 회의로 네덜란드와 타지키스탄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AWC는 아시아 국가와 UN 등 국제기구를 연계하는 물분야 대표 협력 플랫폼으로, K-water는 AWC의 회장기관이자 사무국 역할을 수행, 아시아 국가들의 기후위기대응과 물 이슈 해결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3월 23일 AWC는 '글로벌 물 이슈 투자 확대 및 SDG(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가속화 기여방안'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인도네시아, 라오스 등 정부 관계자와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 녹색기후기금, 미주개발은행 등 물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박평록 기획부문이사는 "K-water는 AWC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해외 정부와 국제기구, 투자기관을 연결하는 글로벌 물분야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FOCUS 2

K-water, UN 물 총회에 주도적인 참여로 글로벌 협력을 이룬다

UN 2023 물 총회 참가

K-water, 'UN 2023 물 총회' 계기 다양한 국제협력활동 전개

'UN 2023 물 총회' 공식 참석을 계기로 K-water는 환경부와 3월 23일 미국 뉴욕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녹색전환 이니셔티브(GTI) 글로벌 출범 행사를 공동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는 △녹색분야 개발 협력 △전 세계 기후 회복을 위한 연대 △녹색전환 이니셔티브 확대 촉진 등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K-water는 환경부와 함께 3월 24일에는 네덜란드,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선진국의 SDG6 달성 사례를 공유하고 개도국의 물 이슈 및 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요청사항을 공유함으로써 SDG6를 203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공동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K-water를 중심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물 기후 협력사업 및 신규사업 발굴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

K-water 수돗물, '제33회 국제 음용수 Tasting 대회' 4위 달성

K-water는 지난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버클리프링스 시에서 열린 '제33회 국제 음용수 Tasting 대회'에서 4위를 달성했다.

이번 대회는 1991년 제1회 대회 이후 올해 33회를 맞이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음용수 대회로, K-water,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총 84개 팀이 참여했다. 대회는 수돗물, 먹는 샘물, 탄산수, 재처리 음용수, 물병 디자인 5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대회 결과, 수돗물 분야는 캐나다, 먹는 샘물 분야는 이탈리아, 탄산수 분야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재처리 음용수 분야는 대만, 물병 디자인 분야는 뉴질랜드



가 1위를 수상했다. 이 중 수돗물 분야는 맛, 냄새, 투명도, 입안 느낌, 뒷맛 등 총 6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졌으며, K-water 밀양정수장은 4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역대 최고 기록으로, 이번 대회를 통해 K-water 수돗물은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다.

한편 K-water는 2011년, 2012년, 2013년도에 국제 음용수 Tasting 대회에 참가해 최고 7위를 기록한 바 있다.

2

K-water, 부산 EDC 분산형 스마트정수장 완공

지난 3월 3일, K-water가 조성 중인 부산 에코델타시티(EDC)에 분산형 스마트정수장을 완공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강서구 일원 1,177만㎡(약 360만 평) 규모로 조성하는 도시 사업으로, K-water는 물로 특화된 스마트 워터시티로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정수장 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부산 EDC 스마트정수장은 국내 최초 건물 내 막여과 기반의 수직형 정수처리 시스템을 도입해 스마트빌리지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하천 및 지하수, 공업용수 등 다양한 취수원으로 용수공급이 가능한 다용도 시스템으로, 정수장



최초 5G 기반 정수처리공정으로 안정성을 높였다. 향후 K-water는 분산형 정수장의 운영기술을 고도화해 미래형 용수공급 모델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3

'2023년 상반기 K-테스트베드' 통합공모 진행

K-water는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7일까지 '2023년 상반기 K-테스트베드' 통합공모를 진행했다.

'K-테스트베드'는 대한민국 전 산업 분야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이 공공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기업이 보유한 혁신 아이디어에 대한 연구개발과 기술 및 제품의 현장실증을 지원하고 우수 제품에는 판로 개척도 지원하는 국가 통합 플랫폼이다. K-water는 'K-테스트베드'의 운영기관으로서, 사업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이번 통합공모에는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41개 기관이 참여한다. 공모 분야는 연구·개발 및 단순실증, 기술·제품성능확인 등 총 3가지이며,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K-테스트베드 공식 누리집(www.ktestbed.net)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한 참여 기관은 기관별 평가를 거쳐 5월 중 지원과제를 선발할 계획으로, 이후 선발된 기업은 실증인프라를 무상으로 이용하며, 기업의 연구개발과 기술 및 제품의 현장실증을 지원받게 된다.



4

주암댐-보성강댐 연계운영 협약식



K-water, 한국수력원자력과 주암댐 가뭄 대응 및 상생 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지난 3월 16일, 국가물관리위원회(민간위원장 배덕효) 주관으로 K-water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은 광주·전남지역의 가뭄대응을 위해 주암댐과 보성강댐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주암댐의 가뭄 대응을 위한 보성강댐의 연계운영 방안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보성강댐의 발전손실 보전 기준 마련을 위해 이뤄졌다.

K-water가 관리 중인 주암댐은 광주·전남지역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다목적댐으로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강우 부족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안정적인 용수 공급

을 위한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협약으로 주암댐-보성강댐 연계 운영에 대한 구체적 근거와 발전손실 보상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가뭄 시 영산강·섬진강 유역에 활용할 수 있는 추가 수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5

K-water, 필리핀 양갯댐 발전설비 현대화사업 상업발전 개시

지난 3월 25일, K-water는 필리핀 양갯댐 보조 3호기 현대화사업을 완료하고 상업발전을 개시했다. 양갯댐은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58km 지점에 위치한 시설용량 218MW(메가와트) 규모의 다목적댐으로, 마닐라시 수돗물 공급량의 약 98%를 담당하고 있다.

K-water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댐 운영관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4년 양갯댐 발전시설물을 인수하고, 본격적으로 상업발전을 개시했다. 이후 K-water는 양갯댐 발전설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왔다. 현대화사업 준공 시 연 발전량 75GWh 추가 생산이 가능하며, 이는 필리핀 22,590가구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K-water는 양갯댐 발전시설을 오는 2039년까지 운영하며, 향후 필리핀 에너지 분야 신규 사업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6

소양강댐 '토목문화유산' 선정·수상

K-water 소양강댐이 2023년 대한토목학회 주관한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으로 선정됐다. K-water 소양강댐은 지난 3월 30일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제26회 2023년 토목의 날' 기념식에서 동판수여식이 진행됐다.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토목유산의 우수성을 후대에 알리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토목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선정절차가 진행됐으며, 이번 선정과정



에서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발전의 상징인 K-water의 소양강댐과 한국도로공사의 경부고속도로가 공동수상하게 됐다. 소양강댐은 국내기술 최초의 대규모 다목적댐이자 준공 당시 아시아 최대·세계 4번째 규모의 사력댐으로서 수도권 지역의 홍수피해 경감과 안정적 용수공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상징적인 토목구조물이다. 이번 토목문화유산 선정·수상을 통해 50주년을 맞이하는 소양강댐의 기술적·경제적·사회적 의미와 그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화

리바운드

감독 | 장항준
개봉 | 2023년 4월 5일

©네이버 영화

이 영화는 전국고교농구대회에서 최약체로 꼽혔던 팀의 기적과도 같은 활약을 그린 작품이다. 지난 2012년 전국고교농구대회에 참가한 부산중앙고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유쾌한 웃음과 따뜻한 감동을 전한다.

봄나들이할 때도
수놓은 문화
속으로

4월이면 봄나들이로 사람들이 넘쳐난다. 전국 곳곳에서 전시, 축제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다양한 문화 행사들을 지금 소개한다.

글. 이종철

축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 | 4월 1일 ~ 10월 31일
장소 | 순천만국가정원, 도심 일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정원을 삽니다'를 주제로 4월 1일부터 7개월간 펼쳐진다. '삶 속의 정원'을 모토로 박람회장은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넘어 순천 도심에서 열린다. 10년 만에 박람회를 다시 개최하면서 그동안 국내에서 접하지 못했던 여러 나라의 다양한 정원 양식을 볼 수 있다.



축제

2023 대덕물빛축제

기간 | 4월 7일 ~ 5월 7일
장소 | 대청공원

대전광역시의 대표 관광지인 대청호 주변에서 4월 7일부터 한 달 동안 '2023 대덕물빛축제'가 열린다. 주 무대는 대청공원이며 '대청호, 고래를 품다'를 주제로 미디어파사드와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 뮤지컬, 티볼 등을 즐길 수 있다. 밤에는 화려한 조명이 다채로운 빛을 선사한다.

전시

나자식물 그리고, 그리다.

기간 | 3월 7일 ~ 7월 9일
장소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방문자센터 1층 전시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는 <나자식물 그리고, 그리다> 특별전시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지구온난화와 서식지 개발 등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고산침엽수의 위기와 보전에 대한 희망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식물화가협회와 협업을 통해 제작된 국내 자생 침엽수, 나자식물 세밀화를 감상할 수 있다.

대한민국 황당규제를 찾습니다!

황당규제
공모전

일상 속 황당규제를 찾고, 개선방안을 제안해주세요.
당신의 생각이 우리 일상을 바꿉니다. :)

접수 기간

3월 21일(화) ~ 4월 20일(목)

공모 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주요 일정

- 1 제안 접수 (3월 21일 ~ 4월 20일)
- 2 부처 검토 및 전문가 심사 (4월 말 ~ 5월)
- 3 우수과제 선정 (10개 내외, 5월)
- 4 우수과제 대상 대국민 온라인 투표 (6월)
- 5 최종 결과 발표 (6월)

주제

☑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괴리된 규제

예 이·미용실에서 머리감기는 업무보조의 머리감기 허용
이·미용사 면허소지지만 가능

☑ 기술·환경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낡은 규제

예 150세대 이상 아파트의 방범카메라는 CCTV 방식만 가능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

☑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과도한 규제

예 주민등록증 사진은 반드시 귀와 눈썹이 보여야 가능
귀와 눈썹 노출 요건 삭제

접수 방법

- 1 홈페이지 접속 www.황당규제.com
- 2 공모 접수 메뉴 내 신청서 제출(중복 제출 가능)



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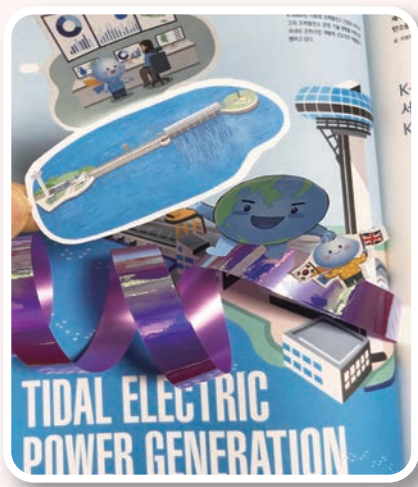
심사 내용, 온라인 투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시상 과제 선정

대상(1명)	최우수상(1명)	우수상(1명)	장려상(7명 내외)
국무조정실장상, 은누리상품권 100만원	국무조정실장상, 은누리상품권 50만원	국무조정실장상, 은누리상품권 30만원	은누리상품권 각 10만원

축하합니다

방울이와 DIY 당첨 작품

3월호 <방울이와 DIY>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사진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정한 정성 가득한 작품을 소개합니다.



김○빈(010-****-0151)



손○수(010-****-1247)



최○정(010-****-1013)



김○라(010-****-9321)



이○선(010-****-1633)

#kwater조력발전 좋아요 이벤트 당첨자 발표
 이벤트 경품 커피 음료 기프티콘 10명
 @rjihyo127 | @vely219 | @saoukwife68 | @bluebird_126 | @fobbi2020
 @soul_mate79.79 | @merryhee | @sun_s_2world | @hyeonsug1357 | @tiramisu_time

<물, 자연 그리고 사람> 퀴즈있수다 이벤트 당첨자 발표
 이벤트 경품 커피 음료 기프티콘 2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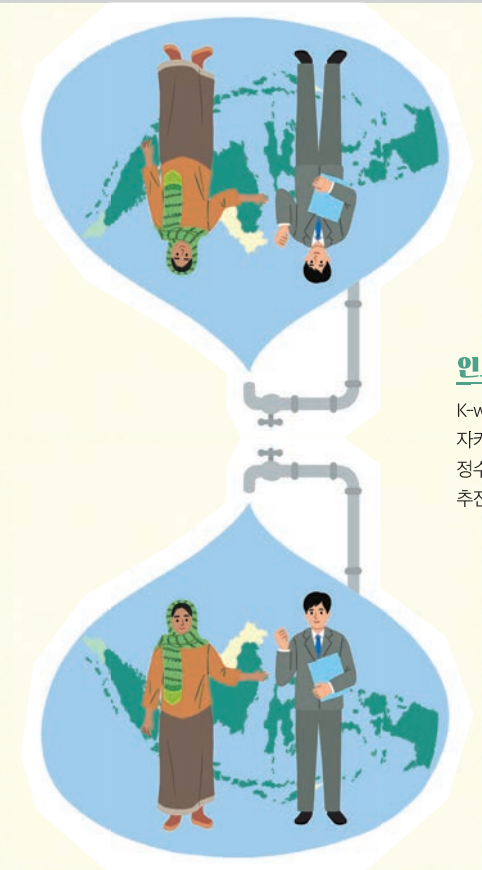
박○목 010-****-8884	정○영 010-****-8214	안○희 010-****-6637	정○주 010-****-2738
박○영 010-****-0486	안○자 010-****-7392	함○실 010-****-4187	고○석 010-****-5153
조○혁 010-****-0920	김○신 010-****-1053	동○암 010-****-2892	안○경 010-****-2237
신○광 010-****-0838	이○윌 010-****-3801	정○홍 010-****-4643	김○지 010-****-7337
신○수 010-****-2189	김○훈 010-****-5509	김○범 010-****-3582	이○민 010-****-3702

이벤트 선물 발송일 4월 15일경
 ※ 4월 20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70-5069-9512로 전화 주세요.



K-water와 함께 하는 해외스마트 도시 만들기

K-water는 축적된 물관리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사업을 수행하며 지구촌 물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물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K-water의 해외스마트 도시를 입체 작품으로 만들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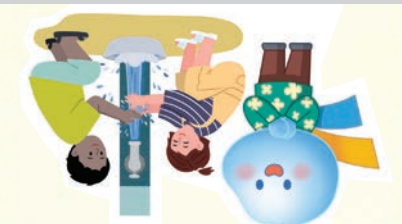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까리안 광역상수도사업

K-water는 인도네시아 까리안담을 수원으로 해 자카르타 등 3개 지자체에 일일 약 40만 톤의 정수를 공급하는 까리안 광역상수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water 해외사업

K-water는 다양한 해외사업으로 지구촌 물문제를 해결하며 행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 인증사진(2MB)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사은품을 증정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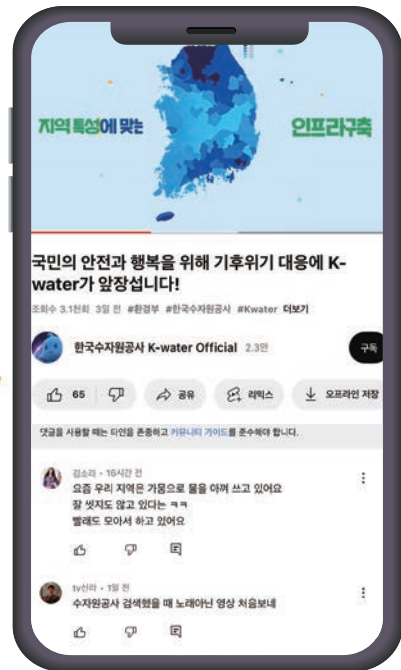
이벤트 경품 문화상품권 1만 원권 5명
 접수 마감일 4월 25일
 선물 발송일 5월 15일경
 ※ 5월 20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70-5069-9512로 전화 주세요.
 선정된 사진은 <물, 자연 그리고 사람>에 소개됩니다.

봄꽃이 흩날리는 4월 K-water와 #소통하기

SNS 오찬사
지금 바로 만나!



봄바람에 꽃비가 내리는 4월에도 K-water SNS를 찾아보자. 최근에 업로드한 재미있는 콘텐츠와 다양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



유튜브 www.youtube.com/kwatertv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에 K-water가 앞장섭니다!

K-water는 청정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해 지구온난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빅데이터, AI, 디지털트윈 등 혁신기술을 통해 통합물관리 실현과 국민 물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ICT 기반의 스마트 상수도 관리로 수도물 공급 전 과정을 감시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K-water의 자세한 이야기는 유튜브를 통해 확인해 보자.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기후위기대응

블로그 blog.naver.com/ilovekwater



정보가 방울방울
**친환경 세제
집에서도 쉽게 만드는 방법**



정보가 방울방울
**봄나물 요리와 함께
식탁에 찾아온 봄!**

트위터 twitter.com/kwater_twitt



노란빛 물결
별써 봄이 왔나봄
#Kwater #바물이 #봄 #유채밭 #봄이왔나봄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ilovekwater

따스한 바람이 사랑살랑 불어오는 봄날, 방울이는 어떻게 봄을 맞이하고 있을까? 봄맞이 구석구석 대청소를 실시하고, 노란색 봄꽃을 구경하며 방울이는 봄을 만끽하고 있다. 따뜻한 봄을 즐기는 방울이 인스타그램에 좋아요를 누르자.



#봄맞이 #차집소 #깨끗하게 #마지막타킷



#바물이 내키 마한 #지자이 #연자



#노란 물결 #봄날 #유채밭 #바물이 한 킷



#하루종일 내 생각 #바물이 새끼 #꾸욱 클리

2023 서울마라톤대회 겸 제93회 동아마라톤대회

K-water 육상선수단의 선전을 축하합니다

정다운 선수 국내 여자부 우승
이숙정 선수 2년 연속 3위 입상
김영근 감독 지도자상 수상

K-water 육상선수단의 붉은 땀방울처럼
K-water는 대한민국 대표 물 전문 공기업으로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